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2004년 개정판)

「한줄기 뜨거운 불길이 내 영혼을 태웠다.
그 불이 글이 되어 여기 남는다.」

개정판 序　　言

샬롬!

부족한 저희 부부의 글을 개정하여 내도록 용기와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판은 "도서출판 하늘기획(기독교텔레비전)"에서 2000년 4월에 출판하여 지금은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간 몇 번이고 수정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이제서 초판의 일부를 빼고, 새 내용을 삽입하여 내 놓습니다.

제 목회의 꿈은 제자 훈련과 문화사역, 평신도 중심의 목회를 통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개정판을 내도록 힘껏 협력하신 "한국문화인쇄소"의 안봉기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 4. 29.

고 봉 환, 최귀숙

목 차

서 언
詩(고봉환)

오일장 ····· 11
가시나무 ····· 12
여기 있나이다 ····· 14
작가 ····· 15
겨울 ····· 16
시인의 고백 ····· 18
제주 여인 ····· 19
실존(實存) ····· 20
기도 1 ····· 21
기도 2 ····· 22
기도 3 ····· 23
아버지의 목소리 ····· 24
브니엘 ····· 25
존재(存在) ····· 26
동갑내기 아내 ····· 28
서울이 좋습니다 ····· 29
허위보고서 ····· 30

8·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하나님의 쿠테타 ····· 31
장미 ····· 33
결혼축시 ····· 34
어쩌면 좋지요 Ⅰ ····· 38
어쩌면 좋지요 Ⅱ ····· 39
고향사람들 ····· 40
무언 ····· 42
이슬 ····· 43
나는 시인이 아니요 ····· 44
꽃의 기도 ····· 45
새벽입니다 ····· 46
소리쳐 부릅니다 ····· 48
서리 ····· 49
눈부신 아침 ····· 50
너는 누구냐 ····· 51
외출 ····· 52
그 날이 오게 하자 ····· 53
문 앞에서 ····· 54
오후 3시 ····· 56
간혹 ····· 57
그림자 ····· 58
골고다 ····· 60
울고싶습니다 ····· 61
늦은 밤 ····· 62
단절 ····· 64
허무 ····· 66
끔찍한 일 ····· 68
돌 ····· 70
고독 ····· 71

10·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수필(고봉환)

수요일 아침 ····· 73
아내 ····· 75
나의 열병 ····· 78
구들방 선생님 ····· 81
부끄러운 유물 ····· 84
글을 쓰기 이전에 ····· 86
한라산 등반 ····· 88
북청의 천둥소리 ····· 91
아버지 ····· 93
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 95
서울 나들이 ····· 98
나의 보물 ·····

불효자 ·····

누구요? ·····

수필(최귀숙)

나의기쁨 ·····
어머니 ·····
모과 ·····
백묵 ·····
산다는 것 ·····

고봉환의 詩

1999. 5.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

수상 작품 ″간혹″
″동갑내기 아내″

오 일 장

제주시 45km, 성산 일출봉 3km의 팻말이 선 곳
꾀죄죄한 장사 보따리를 늙은 햇살 밑에 펼쳐 놓고
옛날을 내다 팔 것 같은 방물장사
결코 싸지 않는 보따리를 드려다 보면
영락없는 우리 엄마 장학금 보따리

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에
풋풋한 채소가 울타리 밖으로 출타하여
행인을 수줍게 부르는 소리를 듣노라면
늦은 오후
우리 엄마 생선 들고 오는 걸음 소리

번듯한 제과점 빵보다는 꿀보다 달다는 흑설탕 호떡,
늙은 호박,
널찍하게 펼쳐진 잡동사니 노점상,
흙 묻은 밤고구마와 새 운동화가 기다려지는데

여보!
오일장에 가거든
내 어린 시절 꿈도 사다주시구려

가시나무

산 속에
외롭게 자란 못난 한 그루 나무가 있다.
비, 바람 몰아쳐도
쉴 곳 없어도
헛된 바램이라 하여도
하늘을 향해 손을 휘젓는다.

어쩔 수 없는 움직임
땅 속의 진을 다 빨아 드려도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슬픔

바람이 지나면
서로 거친 피부를 문지르며
한 마리 새가 밤새 울어대고

농부는 날마다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더니
나무야! 나무야! 가시나무야!
울지 마라
무서워 마라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다들 백합을 따라 가고
장미 앞에 서 있어도
가시나무야!
백년이 지나도 그렇게 있자구나

여기 있나이다

하찮은 그 일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제게 맡겨주소서.
모두 분주하고 큰 일을 찾으려 할 때,
가장 작고 초라하여 주목받지 못한 그 일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사소한 그 일이기에 아무런 가치나 업적이나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선뜩 맡으려 하지 않는다 하여도 ,
열심히 하여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하여도,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그 일이 좋습니다.
또, 지금껏 그 일을 해 왔습니다.
저보다 그 일을 잘 할 사람이 많이 있겠으나
다들 분주하여 사소한 일에 맡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맡겨만 주신다면
처음 부름 받았던 그 순수함으로 섬길 뿐입니다.
이름도, 명예도, 부귀도, 체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인내로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작가

작가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작가는 날마다 글에서 꿈을 먹는다.
작가는 글을 읽는 것을 사랑한다.
작가는 글 때문에 괴로워한다.
작가는 한 단어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러므로,
작가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작가는 슬픔을 사랑하고……

작가는
어스름한 골방
한 점의 불 빛 속에서
지내는 고독한 방랑자이다.

겨 울

눈 내리자
멍멍이 짖는다

뒤 뜰
장독에
펄~펄 소복이 쌓여져 가는

혼 바람
세차게 불어닥치면
집나간 세월이 함께 찾아든다.

바람 타고 사뿐히 내려와
처마에 매달리면
고달픈 고드름 주루룩~ 맺히고

미운 고드름
하나, 하나 떨어져
한 겨울 지나가는가 보다.

아직은
나돌아다닐 수 있는 바깥이건만
미친 바람 소리날 때마다

18·그리움에 목이메이고

여전히 고드름 매달리는데

온돌 방
아내 곁에서 귀를 길게 내세우고
바람 타고 온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저 놈의 고드름 맺히는 소리를 듣는다.

문 열고 나가면
지난 밤
미친 바람이 지나간
깊숙하게 쌓인 세월의 흔적

또 겨울이군

시인의 고백

나는 도둑입니다.
남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만 훔칩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남들에게 바다를 어머니라 하였고
산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내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집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런 나에게 詩人이라고 부릅니다.

제주여인

제주도 돌은
상처난 구멍을 가지고 있다
4.3 때 지아비를 잃은 이의
비통한 상혼이다

제주도 겨울 바람은
넋 나간 어미의 울음소리이다
집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혼을 찾기 때문이다.

제주도에는 여자가 없다
모두 나간 다음에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서귀포 앞 바다에
님을 기다리는 망부석 되어
오늘도 바다를 향해 말없이
큰 한숨 이인 채로
그렇게 서 있다.

실존(實存)

고독의 외줄기를 저 멀리 던져 놓고
출렁이는 세월의 몸부림을 본다.

간혹
격한 몸부림으로
세월을 되돌려 보려하지만
무심한 물결은 허락지 않는다.

잔 바람의 소리에도
놀라 일어설 것 같은
고독의 외줄기에
내 인생의 무게가 함께 던져져 있다.

물결 끝에서 달려 온 세월이
나를 흔들어 깨우면
외줄기는 함성이 된다.

던진 만큼
힘껏 잡아당기고 보면
들려 올려지는 건
허망한 내 꿈 자락뿐이다.

깊은 물에 던져진 고독한 외줄기에
내 희망이 있다면

거두어진
그 외줄기 끝에 내가 걸려있다.

기도 1

불빛 한 점 없는 강단 앞에 나아가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통곡합니다.
육신을 놔두고 자유로울 수 만 있다면.
보채는 삶의 질고를 홀로 감당할 수 없기에

십자가 옆에 쪼그려 앉아 탄식을 토하다 보면
아!, 내 십자가

홀로 달린 고독한 예수 안에서
나 또한 철저히 버림을 당한다.

육신은 떠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그 날 나는 낙원에 있었다.

기도 2

잔뜩
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고
눈물을 빼내어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산산이 흩어지도록
저 앞산이 무너질 때까지
엘리야의 까마귀가 놀래서 달려올 때까지

하나 하나 아는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이름을 불러 놓고 보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새벽 안개를 뒤집어쓰고
무릎을 꿇고 보니 눈물만 납니다.

오늘.
거창한 제목으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 3

불타는 심정을 끌어안고

찬 바람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 올
그 음성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무릎으로
눈물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손들고 외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가슴 속으로 터져 내린
눈물의 폭포 속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에게 갈 수 있다면

그러나
아직 길이 멀기만 하니

기도로
고백으로
그리고, 목숨으로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길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림자 없는 달을 보노라면
아득한 옛날.
달을 보며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 들리는 듯

비 나리는
밤중에
구름 뒤에 있을 달을 생각하노라면
곧 있을 보름달이라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둘러, 둘러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움이
물결 출렁이며
다가서는
앞 바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옵니다.
아버지!

내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오히려 고향을 자꾸 물어보게 합니다.

브 니 엘

새벽녘 동터온다 하여도
서글픈 내 마음이 가라 앉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곁에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한 그루 부여잡고
삼일을 물 한 컵 마시지 않고
속에서 터지는 괴로움을 다하여
부르짖어
부르짖어
만나주셨던 그 날처럼
그렇게
당신을 애절하게 부르짖어 찾으오니
잠시 더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오래지 않았던
그 동산의 이슬 속에서
뵈었지 않았습니까.

한탄강 물줄기
소리쳐 철, 철, 철
그 소리 가운데 계셨듯이

침묵으로 변한 이 새벽에
당신이 내 곁에 조금 더 계시옵소서

동녘이 아니라
한나절이 되어도
서글픈 내 마음이 가라 앉지 않습니다.

브니엘!
조금이라도 제 곁에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존재(存在)

아,
내 사는 시간이 너무 어둡구나

하늘을 우러러보지 아니하고
이미
하늘을 잊고 살아온 지 오래된 이들이기에
더 이야기 할 수 없어

혼자서
좋은 때라 생각되면
그냥 어디든지 무작정 걷자

간혹
물 한 컵 건내는 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자

푸른 들판이 있으면
잠시 누워서
구름을 헤아려 세어보자

때로는
바다 수평선 위에
지팡이 세워 놓고
모자를 벗어
하늘에 경의를 표하자

그리고
내가 있었다는 작은 흔적뿐이라도
하늘에 감사하자

동갑내기 아내

내 동갑내기 아내
아침, 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는다.

무엇이 그리도 미덥지 못한지
내가 무엇이라도 사려면
내 팔을 잡아당기고는
저 멀리 가서 얼굴을 흘긴다.

내가 그것 좋은데 왜 그래
당신이 제일 좋아할 걸 하면
성난 음성으로 맞선다

그 뒤, 아내가 하지 말라 하면
하라는 것만 하리라 약속하지만

결국 그것을 사다 주면
아내는 헤~ 하고 웃는다

내 아내 역시 여느 여편내와 똑같군.

서울이 좋습니다

이른 아침
개가 짖어대는 컹컹 소리에
신문이요 하는 소리가 좋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청소차 소리와 우유 배달 소리가 잠을 깨웁니다.

햇살이
피부를 문지를 무렵이나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좋습니다.

주머니에 몇 푼만 있으면
종로서적에 들어가
이 책, 저 책을 수없이 뒤적이고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쪼그려
자동 커피 한잔 마시며 한껏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좋습니다.

한적한 시간이면
낙엽이 있는 비원 길목이 좋습니다.
창경원에 들어가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육교에서
도로를 지나는 차량과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의 공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홀가분함이 행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남산에 올라서 국립도서관에서 책 몇 권을 찾아 읽은 후,
팔각정을 끼고 장충단공원으로 들어서는 산책길에서
못 부르는 노래 한 곡 부르면 즐겁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교동, 창천동, 비원으로
남산,
해방촌,
이태원 이방인 속으로……

허위보고서

더 내놓을 것조차 이제는 없다.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내리쬐는 태양마저 보지 말라 합니까?
깊은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마저 쥐에게 들켜 버리는 세상입니다.
새벽 벽에 민주주의 만세라 쓰던 시대도 아닌데
사방에 새들이 쫑긋거리며
하루살이 민초들의 입마저 봉해 버리는 듯 합니다.

불빛조차 밖으로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속삭이듯
사랑하는 님이여 부르짖지만
그 소리마저 들켜
인터넷에 내 몽타즈가 널린다.

오오,
이제 쥐들이 지나면, 새들이 맴돌면
눈을 감으시오, 입을 닫아요
그리고 입술에 가벼운 선웃음을 비치시구려

잠드시걸랑
하회 탈 하나 얼굴에 걸치구려
그리고

쥐, 새들이 잠드는 나라로 찾아갑시다.

서로를 충분히 말할 수 없고
뒷골목 음침한 곳에서
쪽지만 건네야 하는
위험한 거래.

잠시 머물러도 가슴 조리게 하는
존 오웬의 1984년처럼
우리는 허위보고서를 쓴다.

하나님의 쿠테타

기형도 1960.3.13-1987.3.9 만 29세

그를 기억하는 知人들은 슬픈 하늘에 대고 고래고래 대든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인들을 데리고 갈 때만 해도 이해를 했었다고

한국전쟁 후, 이념의 분열로 숙청 당했다는
임화, 한설야의 비보를 들었을 때 그래 죽는 게 났지

해방 후, 삶이 궁핍해서 원고지 한 장 내 놓지 못해
명동 다방을 드나들 때에도
가난하게 사느니 먼저 가는 것이 행복이지
이렇게 말 할 수 있었다.
술값마저 얻지 못해 각혈하면서도
글을 포기하지 않았던
저들에겐 하늘로 이사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군사정권의 가혹한 매질에 견디다 못해

인사동 찻집 한 칸 남겨 놓고 떠난
그이가 마지막 희생자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아직 콧수염조차 제대로 깍지 않은 형도를 데려가다니
쒸인(詩人)에 대한 하나님의 쿠테타라고 항의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쒸인들에게 실수하신 것입니다.

장미

잔혹한 4월은
조금도 비켜날 줄 모르는데

한 떨기 장미는
온 밤을 지켰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흘린 피의 자리에

피어날 분신이라도 되듯

애끊는 가슴 쥐어뜯으며
이 밤에
점점 붉어져 갑니다.

결혼축시

아름다운 청춘 남녀
오늘 아침 유난히 밝으리
아담이 눈뜨고 보았던 그 아침보다
이브가 보았던
에덴의 그 찬란한 희망보다 더 크게 다가서리

이날은 그대들의 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
그대들을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를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해 내시는 이 날이기를

날마다 꿈과 사랑으로 신비하리라

그대들은 오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라
그대는 나의 주인
그대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서로를 의하여 늘 노래하시라

주님이 그대들의 주인이며
그대들의 채우심이시며
주님이 그대들의 들으심이시라

이제 둘은 하나라, 이 신비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대들은 떨어지지 말고

혼자일 때는 둘이 되고
둘일 때 비로소 하나임을 아시라
주님이 부르실 그 날까지 더욱 사랑하시라

그대들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시라
그대들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라

주님이 찾으셨던
베다니의 그 집이 되시라

어쩌면 좋지요 I

밤새워 밀가루 이겨
새벽 다가오기 전에
마음으로 구워 낸
떡은 떡이 아니고
차는 차가 아니니
내 놓으신 사랑 앞에
어쩌면 좋지요

구수한 떡이 없나
따스한 차 한잔 없나
살피게 되니
내 탓이 아니라
살포시 내 놓으신 마음

이제 몇 날 안되어
구수한 떡
따뜻한 차
보이지 않으면
어쩌면 좋지요

구수한 떡을 구워 놓으시면
따스한 차를 들고
찾아가도 되겠는지요

잊지 못할 마음
어쩌면 좋지요

어쩌면 좋지요Ⅱ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새가 날며 고개를 내밀어 길을 묻고
구름은 어디로 흘러가나 하고 묻는다면
어쩌면 좋지요.

어여뻤던 한 송이 꽃마저 시들어
안타까이 물으면 어쩌면 좋지요

내 머리 허옇고
내 사랑 그대는 어떻게 변했소
이제는 목소리조차 들리지도 않으니

새는 나무 둥지에
비는 구름 위에
햇살의 빛더미에
세월은 내 마음에만 머물고
그대에게는 받은 것뿐이니

이제
恨 많은 세상 떠난다고
밤새 창문을 애절히 흔들면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에 저 곳에서 만나
그때 대답해 드리면 아니 되겠는지

고향사람들

매년 그들은 창경원에서 모였답니다.
모처럼 『건강했슴등?』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봄기운이 무르익던 날
항상 마나님과 같이 오시던 김영감님이
이번에는 홀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기에
한 잔의 소주를 건네며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흥겨운 북청 사자놀이가 있습니다.
함경도 구수한 노래가 있습니다.
흥겨웠지요.

이제 뉘엿뉘엿
돌아 갈 시간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일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누운 햇님 뒤에
북청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시 떠오를
아침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가야지요
그리고
「고향에 가야 하지비」 하면서
매년
그들은 그렇게 헤어진답니다.

無 言

해 떴는가 하더니 어느덧 어둠이 깔리네
한 젊은이 지나가는가 하더니
그는 어디 가고 허연 먼지뿐이군

땀 흘려 뿌려 놓은 씨앗이 자라나는가 하여
기쁨을 보기 전에 또 다른 씨앗을 들고
그 텃밭에 나가는가
울다, 웃다, 자다, 일어나다
반복하다 보니 변하는 건 나인가?, 네인가?

문뜩 늦은 밤 높다란 하늘을 보니
달은 그대로 있는데,
울타리 넘어 살펴보니
옛 친구들 보이지 않고
웬 낯선 사나이 홀로 앉아 있구려

먼동이 떠오르면
그 사나이 여전히 일어나
자신의 텃밭에 나가네
돌 짝 텃밭에서 돌에 손이 찌여
피라도 흐르면 침으로 닦고
가라지가 보이면 그래도 알갱이가 되려나
愛情으로 바라보는 그 사나이
감 내놓아라, 팥 내놓아라 하지만
무엇을 내놓은들 흡족케 할 수 있으랴……

이 슬

긴 긴 밤들이 안타까이 기다려
풀잎마다 송송이 만들어낸
밤하늘 이야기

동살의 그림자만 스쳐도
금새 터질
얇디얇은 여인의 피부

이제
淸天에
흰 구름으로 날아 갈 그대여!
속히 달려오시구려
아! 더 기다릴 겨를이 없소
저기 태양이 떠오르면
나는 이제 그곳에 없소
어서……

나는 시인이 아니오

시인

위대한 시인들이 있었소
지금은 그들이 없소
그러나 시인들의 靈이 글로 남아 있으니

시인들의 삶은 짧았소
이장희. 29세 봄은 고양이로다.
윤동주. 28세 서시
이 상. 27세 거울
이들은 햇빛도 제대로 보기 전에 살았던 이슬이었으니

시인은
하나의 詩語로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데

나는 그들보다 오래 살고 있소
나의 영으로 된 글을 남기지 못하였소
저 햇빛은
나에게 이슬이 되라 하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시인이 아니오

꽃의 기도

옛날에
날마다 아파하던 꽃이 있습니다.

꽃은
하나님, 단 하루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꽃의 아픔을 치료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꽃에게는 아름다움과 향기는 없어졌습니다.

새벽입니다

서럽게 우는 어둠의 소리를 들으며
초봄 이슬이 지켜 온 새벽에
살그머니 그분 곁으로 가보렵니다.
얇은 겉옷 한 겹에 쌓여서
밤새 몹시 추우셨을까봐
내 고이 간직한 덧옷 하나 들고 가보렵니다.

지난 밤
그 아우성도 사라지고
내 걸음 소리만 들리는

그분이 누우셨을
그 앞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지 않으리라

결코 아무 말도 드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직 앞을 분간치 못할
새벽이라 그럴까요?

소리쳐 부릅니다

소리쳐 부릅니다.
성산포 수평선 너머에 들리도록
내 고통을 다하여 불렀습니다.

누구를 찾는 소리냐 하고 물으시면
날 두고 간 달님을 찾는다고 말할까요
떠나 버린 배를 돌려보려고 불렀다 할까요

누군가 돌아보면
그냥 소리쳤다고 말할까요

아니오
아니오
나에게 소리쳐 본 것이요

한라산 너머로 소리쳐 보았더니
한줄기 바람만
내 가슴속으로
들어옵니다.

서 리

세찬 바람이
밤새 할퀴다가
심술궂음으로 퍼다 버린
大地의 서러움이 되어버린
흰 꽃

머물라 말하지만
어느덧
저기
이른 아침 우물 물 길러 온 새 각시
시린 손 호~오 불때면
이미
동녘이 외면해 버린
할머니가 되어 버린
여인의 이야기

눈부신 아침

여느 새벽보다 일찍이 나가려다가
차 유리창을 뒤덮은
하늘이 천년동안 쌓아둔 천사의 옷자락

단정하게 뻗은 길에
경건하게 빚어놓은 태고의 숨결

그때이던가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던 풀잎들이
눈물을 토하며
천사의 옷자락 벗는 소리
눈부신 아침이 거기 조용히 서 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뜨거운 햇빛을 머리에 이고 걷노라면
거리마다 낯선 이름이 걸려 있다

머리 들어
하늘을 보노라면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가로 막는다

손 내밀어 집어 드는 것마다
읽기 어려운 이름들이 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올려보아도
내려 보아도
모든 것이 이름이 있다

그럼
영과 육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너는 누구냐?

외출

복잡한 우주의 공간에서
쉴만한 곳을 찾으러
홀몸을 일으켜 세우다.

아무도 날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나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하다

때로는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아도 되는
누구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책도 읽지 않아도 되는
노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시도 없는 곳으로 가보고 싶다

거기에는
외로운 빈 영혼 하나 있으면 족하다.

그 날이 오게 하자

그 날에 성산 일출봉에서 붉은 빛으로 시작하게 하라
그 날에 밤 지키다 넘어간 달의 푸른 눈물을 담은 바다에서 시작하라
그 날을 오게 하자
그 날을 오게 하자

그들은 다시 바다로 가야 한다며
그들은 다시 바다가 되어야한다며
그 날을 기다려
너와 나의 꿈을 실어 오게 하자

그들은 바다에 있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땅에 있거라 하네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처럼 힘들고 먼 시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의 푸른 바다는 붉은 황혼을 기다려 서 있고
우리는 붉은 황혼이 빗어둔 푸른 바다를 기다리네

달 들어가면, 배 들어오니
너와 내가
붉은 황혼 뒤,
숨은 그림자 반가이 맞이하라

문 앞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비 쏟아지는 숲 속
나뭇가지 사이를 헤매다가
낯선 집 찾아
쾅 쾅 세차게 두들겨도
대문만 찌끄덕, 찌끄덕

여보세요
여보세요

애타게 부르짖어도
속절없이
엄습해오는 빗줄기에
이미 더 젖을 마음도 없는데

비바람 불어
돌아갈 길 잃어
돌아서면 어둠 뿐이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르릉, 쾅,
번쩍
천둥 번개 소리에 묻혀질 뿐

어서
문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후 3시

저 수평선 끝에서 거친 숨 몰아쉬며 열둘 물결의 파도가 일어난다.
까뮈의 낡은 햇빛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양이다

내 마음엔 바다가 없으니 그를 숨겨줄 수 없다
저 수평선에 나아가 파도야 내게로 오지 말라 말 해 줄 수 없고……

파도는 까뮈의 낡은 햇빛을 피해서
헉헉거리며 내게로 도망쳐 온다.

그때가 오후 3시이다.
- 이 시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다.-

간 혹

간혹 가고픈 곳이 있소

부르튼 손,
손톱에는 시커먼 때,
구슬
딱지
여자아이들 고무줄

이른 아침부터
잠 덜 깬 친구들 모아
해지는 줄 모르고
헤집던 그 골목

눈이 많이 내리면
때때 옷 입을 때면

수요일 아침.
"그 사람이 보고 싶다"를 보다가
간혹 가고픈 곳

지금은
그 골목도 사라지고,
그들도 없지만-

그 림 자

순간에 지나친 너는 누구냐?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 너는 스쳐갔다.
다시 지나면 잡아야지 하는 순간
너는 너무도 빨리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냈지만
너는 다시 내게 나타내지 않고
너와의 숨바꼭질은 계속된다.

다시 나타난 너는 그전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곤 하지만,
누군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사이에
너는 어느덧 또 저 멀리 사라진다.

그렇지, 너였구나? 하는 사이
다시 너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비구름 속에, 폭풍, 천둥, 번개 속에 숨어 버렸다.

네가 다시 나타나면
이번에는 꼭 잡고 말겠다.

너는 어디 있느냐?

비구름 걷히기를 기다렸다.
폭풍, 천둥소리가 멈추고, 번개가 지나간 자리에,
고개를 내밀고 찾아보지만
네가 어디쯤 숨어 있을까?
네가 어디쯤 있는지 찾아낼 도리가 없다.

너는 희망의 그림자요, 선택의 기회요,
변화의 요술쟁이가 아니냐?
나는 너를 찾건만 너는 나를 순간에 지나치고
여러 모습으로 나를 혼란케 하더니
정신 차려 보면
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너 거기 있으면, 이제는 섯거라
더는 가지 말라 내 너를 잡고 말 거다.
하지만 너는 그림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다.
어디에 숨었나 찾아 나선 이른 아침.

저 산 넘어 무지개 속에 있더냐?
비둘기 물고 간 잎새에 있었더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너를 찾다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어 지친 몸
물끄러미 한쪽에 걸린 거울을 쳐다보니
머리카락만 빠져나간 빈자리뿐.

골고다

긴 나무 하나
등에 간신히 짊어지고는
거칠고, 가파른 언덕 위로
비틀, 비틀,

비쭉 튀어나온
돌부리를 피할 참이면
휘~
날아든 아우성

여기, 저기,
검붉어 버린
太古의 숨결

높은 나무 위
가냘픈 사나이 하나

時空을 가르고
비를 내리고
천둥을 부르고
무덤을 열리게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한 天聲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달력만 넘기고, 숫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모두 즐거워 이 거리, 저 거리로 나간 사이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슴 치며 울고자 합니다.
새 천년보다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여
울고 싶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며 민족의 회개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지난 천년이 헛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숱한 피 바람이 지나간 자욱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의 묘 흔적 앞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며
영혼의 큰 울음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늦은 밤

늦은 밤

밤이 다가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예배당에 나아가 자리를 펴고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할 수 있어서.
늦은 밤이 좋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좋습니다.
숱한 괴로움과 분주한 일에서
자유를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가야 할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오직 그분에게만 매달릴 수 있기에
늦은 밤이 될수록 좋기만 합니다. .

밤에 잠을 자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어도,
기도하다가 그만 깊은 잠 속에 빠져도 흠이 안됩니다.
모든 고통에서 쉴 수 있기에 밤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추운 예배당에서 밤을 지낼 수 있느냐고 물으면

씩하고 웃지요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비록 예배당이 춥지만 아주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小 강단에 새겨진 십자가를 만지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밤에는 소식을 나눕니다.
반갑고 서글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불어 닥치는 비바람 소리로 깊은 잠을 못 자고
이리 저리 뒤척이며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밤이 좋습니다.

밤은 좋습니다.
늦을수록 좋습니다. 나와 주님만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저녁에 짖던 멍멍이도 잠든 때이기에 아무도 이 시간을 깨지 못합니다.

斷絶(단절)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날 부르는 소리는 없었다.
저렇게 킬킬 컬컬한 소란 속에서도
나를 부르는 이 없으니 참으로 이상한 거리이다

그 속에서도 난 저들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개나 있다
그러나 그 눈은 나를 볼 수 없는 슬픈 눈이다

내가 저들에게 악수를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저들과 나 사이에는 익명의 거친 모습만 존재한다.

거리의 저들은 날 빼 닮았으나
그 사이엔 무거운 고독이 가로막아선 단절의 스침이다

나는 늘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외로움도 모르고 사는 모양이다

이 거리에서 나와 저들이 다른 점이 이것이다
그 이름을 단절이라고 부른다.

허무

눈곱을 겨우 딱은 햇빛 아래
아직 준비가 덜 된 카페 2층에 앉는다.
오늘은 그곳의 주인이 되기로 하였다.

탁자엔 그럴듯한 제목의 두툼한 책을 놓고
누군가 드려다 봐주기를 기다리는 이 헛된 의식
누군가 드려다 봐주기를 기다리는 이 헛된 의식
기다란 머리카락 감추고 나타나지 않는다.

내 앞자리 빈 의자에
창밖의 저 커다란 우주가 들어오겠다고
창문을 열어 달라하지만
그것을 받아드리기엔 카페는 너무 좁다.

이렇게 헛된 의식을 한차례 치르고 나면
어김없이 하루사이에 늙어 버린 태양이
고개 숙이고 내 걸음 뒤를 따라온다.

끔찍한 일

세상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봄이 오면 즐겁다 하고
여름이 오면 덥다하고
가을이 오면 아름답다 하고
겨울이 오면 멋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끔찍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정말 끔찍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저 하늘 아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나로 인해
세상은 소란스러워졌고
온통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는 남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니는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혀 꼬부라진 발음으로
씨인(詩人)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을 보셨습니까?

돌

길가에 마구 굴러다닌 돌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궂은 비와 흙탕에 빠지고
눈이 오면 추위에 오돌 오돌 떨었습니다.

술주정뱅이에게 들려서 저 멀리 나가 동그라져서
온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발길에 채인 그 돌을 유심히 보던 착한 이가
집에 가져가서
흙을 털어 주고
깨진 부분을 닦아 주고 이리 저리 쓰다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돌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돌은
단순한 자갈이 아니라
흙탕 속에 박혔던 옥돌이었습니다.

고독

거친 숨 쉬며 그리 길지 않은 언덕에서 멈춰버린 버스
고개 턱 모서리에 지친 그의 몸이 걸쳐 있다

- 한가로운 나비는 늙은 아낙의 머리에 무딘 날개 쉬이고-

아직 낯설기만 한 태양은 버스 오른쪽 유리창에서
그 온도를 더하고 있다

아지랑이는 날 버리고 간, 님의 날개 짓
갈라진 아스팔트에 버려진 내 추억

버스 창으로 바라 본 바깥 길은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낯선 언덕이었다.

작열하는 태양의 분노에 풀어헤친 넥타이
그 사이로 서글픈 이름의 고독이 숨겨 있다

그것이 나의 자화상이다

고봉환의 隨 筆

1999. 3.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
수상작 “수요일 아침”
″북청의 천둥소리″

수요일 아침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슬며시 TV를 켠다. 그 시간에는 수십 년 간 혈육을 잃고 눈물과 원망, 서러움의 세월을 살아 온 사람들이 한번만이라도 엄마라고 불러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며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목 메이게 할 때가 많다.

어느 해인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던 중에 "오빠 맞아, 왜 그렇게 늙었어" 하며 울부짖는 어느 가족의 만남 장면에서는 아버지께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1.4후퇴 때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에서 전쟁을 피하여 陸路를 따라 홀로 남하하셨고, 부산까지 오면서도 며칠 안에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부모의 고향이 이북인 까닭에 어릴 때부터 친척을 찾아 본 적이 거의 없어 TV에서 비쳐주는 만남의 장면을 보면서 부모의 고향이 어떤 곳일까, 북쪽에 계시다는 조부모와 아버지의 형제들, 여러 친척들은 어떤 분들일까 늘 궁금해진다. 아버지께 이산가족 찾기에 나가시라 하였더니 이제 찾아 무엇하겠느냐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다.

명절 날 아침이면 우리 집 식구들의 외로움은 남다르다. 남들은 큰 집, 작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세배를 올리지만 특별히 세배 갈 곳이 없는 우리 가족은 부러운 눈으로 이웃집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곤 하였다.

아버지는 결국 고향에 가시지 못하고 낯선 땅에 묻히셨고 내 호적에는 여전히 이북의 조부께서 호주로 되어 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함남 북청에 있는 우리 집 과수원에는 배가 익어서 떨어질 때면 마치 천둥소리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곁에서 듣고 있던 집사람이 한번만 더 하시면 백 번도 넘겠다며 빙그레 웃는다. 그래도 나는

그 말씀이 좋았다.

지난 1986년부터 아내와 함께 피붙이 하나 없는 낯선 제주도에 내려와 살았고 3년 지나서 아들을 보았는데 어느 덧 내 키를 넘어 자랐다..

명절 아침.

외아들 녀석이 "아빠! 우리는 세배안가요?"하는 질문을 할 때면 아버지의 눈물이 생각나면서 녀석에게 형제와 가까운 친척이 없다는 미안함으로 마음이 저민다.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는 외아들에게는 내가 보지 못하였던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내 친구들의 아들에게 녀석을 소개하여 그들의 세대에는 서로를 기억하고 왕래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데리고 다닌다.

실향민 2세이기에 겪었던 외로움을 아들에게는 반복하기 싫었기에 나름대로 매년 여름에는 온 가족이 육지 여행을 계획한다.

몇 해 전 여름에는 내가 태어난 부산을 떠난 지, 근 삼십여 년 만에 찾아가 보았다.

부산 청학동 조선공사 건너 편, 골목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가 보니 거의 옛 모습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

그 언덕길은 길 양편에 절벽 미끄러움을 방지하려고 설치한 철책 울타리가 그대로 있었다. 언덕 끝자락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태어난 집을 살펴보니 옛날에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벽돌로 담을 쳐 놓아서 도둑맞을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섯 살쯤에 집에 도둑이 들어 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집 앞에서 얼마간 있어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 안에 들어가고픈 마음을 포기하고 대문 앞에서 온 가족이 사진만 찍었다.

돌아서서 영도다리를 건너니 이전의 다리 옆에 새 다리가 놓여져 있고 옛 다리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멈추고 쉬면서 새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부산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면 내 아들에게는 제주도가 추억이 되리라.

어김없이 수요일 아침이면 TV에 출연하여 만남을 이룬 이들이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우리 언니 맞는데…" 하며 눈물을 흘리면 나도 어느 새 눈물이 나온다. 그런 나를 아내가 보면서 또 시작한다고 핀잔을 주지만 이미 흐르는 눈물과 콧물 때문에 휴지를 찾는다. 혹시나, 아버지의 고향 사람이나 가까운 친척이 나와서 찾지 않을까. 얼굴과 이름은 모르지만 행여 이북의 친척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움 때문이다.

TV에 나오는 그들은 오늘도 만나고,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건만 나는 언제쯤이나 저 북녘 고향 배 밭에서 아들과 함께 배가 떨어지면 난다는 그 천둥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아 내

길게 드리워진 어둠이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새벽 4:30. 예배당에 가려고 일어서다가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본다. 오늘따라 아내는 내가 일어나는 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곤하게 잠들어 있다. 그런 아내를 깨우기가 민망하여 그냥 재워야 하겠다며 흘러내린 이불을 얼굴 너머까지 덮어준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줄 모르고 곤히 잠든 아내를 보면서 새삼 남편으로서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을 느낀다. 십여 년을 함께 살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 준 일이 열 손가락도 못되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를 중매로 만났는데 이미 결정된 사람들처럼 서로가 끌려서 당일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서로가 남보다 조금 늦은 나이이지만 그 후 두 달만에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타향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삼일이면 다들 육지로 돌아가는 제주 신혼여행지이지만, 우리 부부는 십여 년을 살면서도 신혼여행을 아직 마치지 못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둘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서로를 미처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신혼살림을 하다 보니 서로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 적응하느라고 매사에 부딪친 일이 여러 번 생긴다. 그럼에도 나는 아내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평생이 걸려도 아내를 알 수 없을 것 같다.

한번은 모처럼 서울에 다니러 갔다가 처음으로 아내의 옷을 사 주고 싶어서 가게에 가니 "사이즈가 어떤 것이에요?"하고 상인이 묻는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십여 년을 살아 온 아내의 옷 규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 수 없이 집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핀잔을 듣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간혹 외식을 하려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혹시 묻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성격도 나는 매사에 급한 반면, 아내는 충청도 사람으로 조금 느리다. 물과 불이 만났으니 우리 사이에는 의견 차이로 부딪칠 경우가 있다. 그런 다음 화해를 하려는데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 화해를 시도하려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다짐하듯 물어보면 아내는 마지못하여 "개코같은 소리하지 말라"며 마음을 푼다. 그 후로 그 말이 "사랑한다."는 우리 부부만의 암호가 되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장보러 갔다가 주차 후에 따라 갔으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찾기란 쉽지 않았다. 아내를 찾으려 하다가 그제서 아내가 어떤 차림을 하고 나왔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아차!" 하는 탄식이 나왔다. 할 수 없이 어딘가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찾는데 바로 옆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지 않는가. 시치미 뚝 때고 아내의 복장을 살펴보고는 "그래 저것을 입었지" 하면서 아내가 아침에 입은 옷조차 기억 못한 자신을 책망하였다.

그러나, 아내에게 이런 미안한 것 말고 고마운 일이 더 많다. 그 가운데도 시골 보건진료소를 통해 의료전도를 통해 나의 목회에 도움을 주려고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간호학 공부를 시작한 일이다.

이십 년 간 손을 놓은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하여 입시학원을 일 년 동안 다닌 결과, 간호전문대학에 합격하였다. 그러고도 3년을 공부하였으니, 모

두 4년 동안 새벽 별을 보고 나가서 밤의 별을 보고 들어오곤 하였다. 그뿐인가, 첫 시간에 수업이 있는 날이면 집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학교에 가기 위하여 일찍 서둘러도 모자라서 내가 통학을 시켰고 달리는 車 안에서 아침밥을 먹기 일쑤였다. 옷을 입으면 허리가 줄어서 줄줄 내려갔고 맞는 옷이 하나도 없었다. 2학년 때 병원 실습을 하였는데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병동마다 계단이고 복도를 뛰어 다니다 보면 체력이 따라 주지 않아서 아내는 늘 지친 상태였다. 때로는 20대 젊은 간호사들과 학생들이 생각 없이 던져주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40대 아주머니로서 참느라고 힘들어 할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루는 아내에게 학교에 가라고 재촉을 하였더니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면서 목젖이 소리 없이 떨렸다. 그런 아내를 달래서 대충 씻고, 입히고, 학교로 가는 동안 車 안에서 죽을 먹게 하기도 하였다.

그뿐인가, 아들은 아들대로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다. 학교를 가려는데 아들이 어느새 눈을 뜨고 오늘만 같이 있어 달라며 떼를 쓰기도 하였다. 아내가 조금 늦게 들어올 경우에는 아들은 방에 혼자 있기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면서 기다렸다. 지금도 아들은 엄마가 외출을 하려면 늦게 들어오는가 하여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힘겹게 졸업을 한 후, 간호사 국가고시와 어렵다는 보건진료원 모집에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합격을 하였다. 서울과 제주를 왕복하면서 국가가 지정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아내는 보건진료원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혜택이 미비한 里마다 보건진료원(간호사)을 거주하게 하여 里民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낮에는 일하러 나갔다가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설립한 곳이 보건진료소이다. 그러나 시골 의료혜택 취지로 시작한 보건진료소가 이제는 경제 한파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 이미 있는 보건진료소를 줄이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감축하는 형편이라 아내의 발령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우리 마을 보건진료소 담당자로 발령이 있어서 里民들을 도울 수 있기

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아내의 머리카락이 겉에는 아직도 까맣게 보이지만 빗질을 하며 넘길 때에는 온통 하얀 머리카락이다.

오늘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나의 열병

나는 심각한 열병에 걸렸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책방에 들러 책 한 권이라도 들고 나와야 하는 병이다. 나의 병명은 책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다.

오늘, 한흑구의 '동해산문' 1978년 제 2판을 구입하고 너무 좋아 비닐 포장을 입혔다. 그 책을 밤새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며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한흑구의 문고판과 비교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동해산문'은 한흑구 선생이 포항에 은거하다가 이십여 년 만에 발표한 수필집인데 그의 수필은 마치 시를 쓰듯 단아하고 서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숨겨진 금을 캐듯 귀한 책 한 권이라도 구입하게 되면 내 마음은 제일 부자가 된 것 같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나의 이런 열병이 시작된 것은 대학시절부터이다. 학과의 과제를 받으면 먼저 참고도서 목록을 살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을 뒤져내어 참고도서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만약에 도서관에 그 책이 없으면 국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 확인을 하여야 마음이 놓인다. 그래도 찾는 책이 없으면 청계천 책방을 다 뒤져서 찾아내어야 그 날은 잠을 잘 수 있다. 만약에 책이 다른 곳에 있다면 반드시 그곳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한 달려가야 하였다. 만약에 꼭 찾아야 할 책을 구하지 못하면 상사병에 걸린 처녀처럼 한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보채며 고심하였으리라.

간혹 낯선 도시를 지나칠 때면 반드시 그곳에 있는 책방을 찾는 것이 나의 첫 번째 하는 일이다. 혹시나, 이미 절판이 되었거나 희귀본이 된 아주 옛날 책 한 권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살펴본다. 책방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가장 어두컴컴하고 거미줄이 낀 구석진 곳을 살핀다. 거기에는 대개가 아주 오래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도 손이 닿지 않은 구석진 곳에서 찾는 책이 보이면 침을 삼키며 주변을 이리저리 살핀다. 책에서 나는 특유의 곰팡이 냄새며 낡은 표지, 최근의 책보다 싼 가격을 보면서 흥분을 억누른다. 값을 내주고 책을 품속에 얼른 넣고는 주인이 부를까봐 도망치듯 나올 때가 있었다.

하루는 청계천에서 누구나 가지고 싶은 품절 된 책을 발견하여 차비까지 털어서 구입한 일이 있었다. 빈 주머니가 되었으나 그 책이 귀하고 좋아서 세 시간이 넘는 집에 가는 길이지만 식사를 거른 채 마냥 싱글벙글하면서 걸을 수 있었다.

때로는 꼭 가지고 싶은 책을 찾아내어도 책값이 없어서 애를 태울 경우도 있었다. 할 수 없이 다음에 구입하겠으니 그간 남에게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서야 하였다. 그러고도 여러 차례 책방에 들어가 마치 애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쓰다듬어 보고 그 책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집에 들어와 잠을 자려 하지만 그 책이 눈에 선하게 떠올라 잘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끙끙대기를 여러 날 후에 기어코 그 책을 구입하여야 일어날 수 있었다.

최근에 내가 읽고 있는 수필집마다 고전적인 인물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하여 너무 궁금하였다. 나의 예의의 편집증세가 도져서 인터넷 사이버 서점을 통해 수소문하고 그들의 저서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덧 책꽂이의 빈자리를 서서히 채우고 있다. 덕분에 찾기 힘든 책 몇 권은 구할 수 있었다.

나의 열병의 근원은 수집욕심 때문이다. 쓰고자 하는 글이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비교하고 확인을 하여야 마음을 놓거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앓게 되었다. 아내에게 다시는 책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철석같은 약속을 하건만 아내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 나도 지키지 못하였지만. 이 병을 앓게 된 것은, 책 속에 담긴 좋은 글이 단순히 좋아서, 또는 유명한 분들의 글이기 때문이 아니라 글 속에 녹아내린 그분들의 고뇌와 인생, 歷史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분들의 수필에는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분들의 사상, 인격과 삶의 향기가 스며있다. 그런 분들의 글이 좋아서 열병에 걸렸다.

무애(无涯) 양주동은 육당 최남선 선생에게서 아주 귀한 책을 빌려다 본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가급적 책을 빌려주지 않는다. 나름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애착으로 구입한 책이기에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내줄 수 없으니 심각한 병 같다. 더구나 나는 가지고 싶은 책은 반드시 구입을 하여 내 서고에 두고 보아야 마음이 풀리는 증세가 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책이라면 여분으로 더 구입하여 친구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번에도 월북 작가인 근원 김용준의 수필집 1988년 초판을 구입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귀한 책이라며 돌렸다. 이 일로 아내의 핀잔을 들었지만. 내 서고에 쌓여만 가는 책들을 보면서 이태준 선생의 말처럼 영양(令孃)이나 귀부인을 초대한 듯 결코 땀이나 때가 묻은 손을 대는 것은 실례라고 느낄 정도이다. 나는 날마다 나의 아기들, 아니 애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몇 권이 더 늘었나 세어 본다. 책 뒷면에 가격이 몇 환이라거나 단기 몇 년이라고 쓰여 진 것이나 이제는 구입할 수 없는 책을 보면서 그 책을 구입하기까지의 비화(秘話)를 생각하며 즐거워한다. 이런 나에게 열병이 들었다고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구들방 선생님

유난히 좋은 날씨이건만 아들과 함께 방에서 아들의 과거가 숨어 있는 사진첩을 펼쳐 놓고 입씨름을 한다. 나는 아들이 자라 가는 모습을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한 사진기에 담아 두려고 노력한다.

아들이 막 태어나 눈을 뜨지 못하고 기저귀에 똥을 싸 놓은 모습부터 개집에 들어가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한참 웃었다. 어떤 사진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닮지 않은 이런 사진을 찍었냐며 다투기도 한다. 아들이 두 살 때, 5·16 도로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차 앞에 앉혔더니 갑자기 "나 어떻게 해!" 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너무 놀랐고 그것이 첫 번째 소리였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한참 설명을 하였으나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아직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아들은 그간 찍어둔 여러 사진을 보고는 마음에 들었는지 내 뺨에 뽀뽀를 한다.

그런 아들의 재롱을 받으면서 아들에게 아버지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울타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숙연해진다.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씩씩하게 잘 키워야 할 터인데……"

아들은 나에 대하여 아빠가 목사라는 것과 책도 많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여름마다 육지 여러 곳을 다니고 보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학교에서 아빠에 대하여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하면 담임선생이 자기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었을까?,

어렴풋이 기억하는 내 아버지는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병약한 분이었다. 집에 계시는 날이 많아서 때로는 아버지가 남들이 이민 간다는 미국에라도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버지는 동대문 도깨비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찾아가면 얼른 집으로 보내려고 하셨다.

그런 아버지에 대하여 의문이 많은 것은 나를 영도다리 밑에서 주어 왔

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였다. 6·25 전쟁 후인지라 살기 힘들어서 누군가 몰래 다리 밑에 버린 것을 울음소리를 듣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기분이 나쁘면 엄마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선 때도 있었다. 그 뒤로 의심이 생기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드려다 보았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초등학교 일 학년 때, 학교에서 가족사항을 써 오라는 통지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기록하는 것이 있었다. 내심 이제 진정 아버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어라 쓰는지 함께 드려다 보았다.

아버지는 잘 쓰신다는 필체로서 붓글씨로나 펜글씨가 한 획, 한 획마다 힘이 있고 뚜렷하니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보고는 감탄하였다. (이 일로 악필인 나는 많은 책망을 들었다)

아버지는 직업란에서 잠시 멈추고 "상업"이라 적은 후, 학교에 제출하라 하였다. "아!" 그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비참함이랄까?, 부끄러움이랄까? 설문지를 학교에 갖다 주지 않고 가방 속에 한동안 숨기고 다녔다.

왜 그랬을까? 아주 어린 기억에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전직이 교사였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내심 직업을 교사라고 쓰기를 기다린 탓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에게 여전히 무언가 말을 못할 거짓말이나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한층 더 가지게 되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궁금증으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였다.

아직 어린 초등학교 일 학년이었으나 내 신상에 하여 분명히 알고 싶은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이북의 가족,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고 싶다고 졸랐더니 다 컸다며 말씀을 해주었다. 사실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버지가 교사이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함남 북청전문학교 토목과 장학생이었는데 그때 교사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동란이 일어나 홀로 南下하였고,

부산에 와서 흥남에서 단신으로 내려 온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전쟁 중에 군 소집을 받고도 이북 출신이라 불이익이 있을까봐 기피하였다. 나중에 자수를 하여 거제도 반공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반공포로 석방령에 의하여 자유를 얻었다. 아버지는 기피자였다는 것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 어린 나에게 교사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늘 집에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구들방 선생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한 것이다. 가끔 아버지에게 "구들방 선생님"이라고 별칭을 불러 드리면 괜히 웃으신다.

아버지의 북청전문학교 동기들은 나름대로 남한에서 뜻을 이루고 있는데 잠시 판단을 잘못하신 탓에 군 기피자가 된 내 아버지. 당시로서는 최고 학부와 지성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명필임에도 제대로 직장을 가지지 못하신 채로 고생하다 떠나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남기었는가?

한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셨던 내 아버지. 어떤 일에 결단이 필요할 때에는 우회로 뜻을 밝히셨던 소극적인 아버지. 그러나 결정되어진 일에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였기에 나는 마음속에 그런 성품은 닮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였다.

특별히 나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말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한 번 씩 방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묻지 않고 구입하라고 용돈을 건네주던 그 손길에서 아버지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곳에서는 뜻을 펴지 못하였으나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예 선생님"이라도 되어 있으시기를…….

부끄러운 유물

문구용 칼날을 물건을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그 속에 아무렇게나 있는 옛 동전들을 보았다. 국가를 식별할 수 없는 외국 동전과 군사 정부의 기념주화가 나의 무관심으로 긴 잠을 자고 있었다.

그중에서 유난히 커 보이는 제 5공화국 기념 동전을 보면서 그 시절을 잠시 떠 올려본다. 그때 神學대학생이었던 나에게 어찌 국가에 대한의 충성과 사회적 정의감이 없었겠는가.

전두환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치열한 데모를 앞두고 각 대학교마다 학생 비상지휘본부를 두고 시시각각 발표되는 外信을 즉각 번역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 현 시국의 상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제대하고 복학생인 나와 동기들은 이번 데모에 참가하기가 곤혹스러웠다. 나이도 있고, 이미 교회의 傳道師들이어서……

지휘부에서는 복학생 선배들이 도와야 한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예비역들은 회의를 열었다. 결국 사회학과와 교육과 복학생들이 앞장서고. 신학과는 현직 전도사들이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원자로 나서기로 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미 당시 정부에서는 학교 안에 위장 대학생을 프락치를 심어 두었다. p라는 남학생이 장학생으로 편입을 왔는데 그가 바로 그런 임무를 맡았다. p는 졸업 후에 국가기관에 특별 취업되는 행운(?)을 누렸다.

드디어 D-DAY.

군사 정부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기 위하여 남대문 앞에 서울의 대학생들이 학교 별로 위치를 정하고 남대문에서 서울역 앞까지 집결하였다. 이미 사회는 민주화 열망으로 민심이 흉흉하였고, 민주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요구했던 치열한 데모의 현장이었다.

그때, 갑자기 남산 언덕길에서 트럭 한 대가 진압군인들 앞으로 굴러 내려오더니 그만 몇 명의 희생자를 만들고 말았다. 불과 2-3분 사

이에 일어난 일인데도 군인들의 희생이 적지 않은 듯 싶었다. 군인들이 희생이 있자 데모대를 향하여 최루탄을 쏘면서 잔인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무장해제를 당해 피 흘리며 살려달라는 또래의 군인들, 예비역인 나와 동기들은 군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순간이지만 안타까움과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군인들의 진압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서 길에 누워 있는 학생들, 남대문 주변에는 깨어진 벽돌과 인산인해, 군인을 덮친 트럭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 때의 열기를 대변하듯. 우리는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대학생 중 일부는 이미 경찰에 갇혀 있는가 하면, 재빠른 학생은 어느새 종로와 을지로, 용산으로 도망치고 보이지 않는다. 어느 학생은 뺏은 것으로 보이는 방탄 마스크를 쓴 뒤, 진압봉을 들고 물러서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 우리 대학생의 의지에 달렸다고.

나와 동기들은 최루탄 연기가 덮여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야 하였다. 그러면서도 주변을 살피니 후배 여학생들이 미처 몸을 빼지 못하고 무리에 갇혀서 우왕좌왕하더니 순식간에 달려 온 군인들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얼른 내 동기들은 소리를 지르며 누구는 누구를 맡아라하며 여학생 보호에 신경을 썼다.

주변을 보니 평소에 얌전하던 k양이 눈물을 흘리며, 재채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며 울부짖고 있었다.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후배들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켜야 하였다. 우선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제일 복잡한 곳으로 가야만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명동으로 피하였다. 명동에 가자마자 아무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비누를 달라해서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최루탄 냄새를 밀쳐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정권이나 학생들의 희생으로 담보한 민주주의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 이후로 대학에 휴교령이 발효되어 1980년 2학기를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남산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간혹 벗들과 경춘선을 타고 등산을 다녀오는 것으로 내 대학의 마지막을 만들고 있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던 민주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6•29 선언이 있었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군사 정권이 지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세워졌다.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제 5공화국의 동전은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 효용 가치가 없는 화폐로서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기념주화가 오히려 歷史의 쓰레기가 되어 기념품 수집상들에게는 수집의 가치도 못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제 불혹의 나이도 지났고, 되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비탈길에 서서, 내가 남길 책들과 기록들, 몇 장의 사진 속에서 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歷史的 추억이 묻어 있기나 할까.

글을 쓰기 이전에

나는 문학을 모르다가 남보다 늦게 맛을 알면서 나름대로의 문학관을 가지게 되었다.

글은 才能으로 쓸 것이 아니고 情으로 써야 할 것 같다. 재주는 겉으로 광채를 발하지만 정은 삶에서 터득한 체험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나 생각대로 글을 쓸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글을 쓰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 萬人의 眞理일 것이다.

어떤 유명한 선생은 그에게 기술을 배우러 온 제자에게 각종 허드레 일을 먼저 시켜보았다. 그 일을 통과를 하여야 비로소 기술을 가르쳤으니 배

우기보다 가르침을 받을만한 인간됨을 먼저 보았다는 이야기이리라.

작품의 자부심과 고결함에 대하여 유명한 도예 공은 가마니에서 구워 낸 진품이나 예술품이 아닌 다른 그릇들은 모두 그곳에서 깨트려서 가짜가 유통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나, 이문열의 "금시조"라는 소설에서는 전설의 새를 그리고 싶었던 大畵家의 소망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후회 없는 단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픈 심정을 배워야 할 것 같다.

글쓰는 이들이 먼저 배울 것은 이전 시대의 상황이나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시 겪는다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교훈을 이미 쓰여진 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다. 작가가 가진 이념의 고민과 삶의 고통을 우리 시간에 담아 재해석하여 살아가려는 교훈을 배우는 것이 글쓰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글쓰기를 배우려는 문학도들은 글의 정신과 사상을 먼저 배워야 하겠고, 글쓰기에 앞서서 인간 됨됨이를 먼저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 글은 좋은 인격의 형성 도구이지만 나쁜 글은 어긋난 인격을 형성할 것이다.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글에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이 담겨있고, 글은 옷차림이요, 생각의 표현이요, 인격이다.

그러므로, 글에는 글 쓰는 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현재까지 체험되었거나 감추어진 내면의 자신을 담아 나갈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글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에게 하고픈 꿈을 글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것이다. 글에는 작가가 지닌 잠재적 인격으로 쓴다는 말로서 글은 인격의 결정체이다. 작가들이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전투를 치르거나 작가의 이념을 대변하여 사회에 외치는 예언자로 만든다.

실제로 작가는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문학 이론이 있다. 거짓 예언자는 사이비 종교를 형성하듯, 거짓된 마음으로 글을 쓴다면 사이비 글(문학)을 만들어낸다. 거짓된 글은 그 안에 자신의 거짓된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며, 반성이나 배움의 글을 받아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을 소외의 그늘에

가두게 될 것이다. 싸구려 글(문학)로는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저항 시인 "이상화 선생"은 본인의 작품 출산부터 先天不足이라 하면서, 그 당시의 문단에도 修辭와 技巧를 수확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내 놓을 것이 없다고 탄식한 바가 있다.

단순히 글 쓰는 기술 습득과 당면한 성취만 바라는 것은 자기 否定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아무리 수필이 생각나는 그대로 쓰는 잡동사니 같은 글이라 하여도 글에는 품위가 있어야한다.

그래서 수필은 본인이 체험한 삶에서 우러나는 진실이 담긴 인생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수필을 쓴다는 것은 누구와 견주어서 잘 쓰거나,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나, 누구의 글 쓰는 기술이 좋은가 하여 겨루는 승패의 도구가 아니다. 글 쓰는 이는 비상식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 아니라 글에는 글에 의하여 반박과 답변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논쟁의 예는 많았는데 문학은 시대에 따라 논쟁의 계보를 이었는데 이념이나 시대의 불일치가 그 원인이었다.

한국 文學史에 여러 번 있었던 논쟁은 글의 技術的 싸움 때문이 아니라 작가의 思想論爭으로 글 쓰는 이의 정취와 삶이 묻어 나왔고 사회 전반에 견책과 교훈을 주었으며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문학도들은 글의 정신과 사상을 배워야 하겠고, 글쓰기에 앞서서 인간 됨됨이를 먼저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 글은 좋은 인격의 형성 도구이지만 나쁜 글은 어긋난 인격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글은 좋은 인격의 열매라 하지 않는가.

한라산 등반

지난 2월 하순 겨울 한라산에 가자는 제의를 받았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라산 등반을 즐겨한다고 들었다.

한라산의 높이는 1950m이고 가는 길목은 어리목, 영실, 돈내코, 성판악 네 곳이다.

제주도에 와서 얼마 안 되던 때, 가까운 분들과 영실 코스로 해서 백록담까지 다녀 온 적이 있었다. 그 때는 아내와 함께 갔는데 중도에 다리를 다쳐 거의 아내에게 몸을 의지하고 어렵게 하산을 하였다.

아직도 한라산에는 눈이 쌓였고 길이 미끄러워서 등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과 지난 번 다리를 다친 일이 있어서 주저되던 참이다.

"갈까?, 포기할까?", 결정 내리기가 쉽지만 않다.

금번 코스는 어리목으로 윗세오름 까지 가는 것인데, 한라산 보호 때문에 백록담에는 갈 수 없기에 윗세오름 까지가 현재로서는 갈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다. 막상 약속한 날 아침, 마음의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하였는데, 등산을 가는 줄 알고 모친께서 아침식사를 부지런히 준비해주셨다. 덕분에 떠밀려서 운동화, 지팡이, 장갑, 든든한 복장을 챙기고 약속한 장소에 나갔다.

한 명, 두 명, 반갑게 인사하며 모이는데 그들은 거의가 가족동반이었다. 마음속에 아내는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지만 아들이라도 데리고 나올 것 하는 후회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망설였으나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올라가자 단단히 결심하고 등반을 나섰다. 어리목 입구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자 모두 차에서 내려 차량을 뒤에서 밀어주고 조금 걸어가다 보니 한라산 한 자락이 저 앞에서 웃으며 다가서고 있다. 이제부터 입산 지점이므로 가는 동안에 있을 일들을 대비하고 격려하면서 등반을 시작하였다. 막상 산 안으로 들어서니 밖에서 보던 모

습과 달랐다. 길목이 좁은 반면, 등성이마다 눈으로 덮여 있어서 비탈길은 미끄러워 걸음을 딛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 겨우 시작인데 하면서 한 시간쯤 갔을까? 길이 험해지고 골은 깊어지고 아침을 서둘러 먹은 탓인지 허기를 한 분은 등산화를 신었으나 눈으로 덮인 오르막길이라 자꾸 미끄러진다. 동행한 그분의 아내가 "평소에 뭐 잘못하신 것 있어요? 자꾸 나에게 절을 하시게요" 하는 말씀에 모두 웃었다.

이정표를 보니 아직도 2.3km나 남았다는 것을 보고는 내가 일행을 향하여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고생하면서 거기를 가야하지요?" 하자 또 한 번 모두 웃는다.

점점 험해지는 눈길을 올라가면서 그제서 신발창에 단다는 등산도구를 준비하고 올라오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입구에서 대여를 해준다는데 길이 이렇게 험하고 미끄러우며 길이 멀게만 느껴질 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일행들이 두 시간 가까이 지나자 시장하여 중도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양지에 자리를 펴고 주최측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어디선가 시커먼 까마귀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음식 냄새를 맡고는 먹을 것이 있는가 하여 찾아든 것이다. 생존의 본능인가?, 미물들의 본능적 적응을 보면서 인간 또한 그에 뒤떨어지지 않는 무서운 존재이다. 아름답던 산이 사람들이 남긴 흔적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음을 보면서 인간처럼 무섭고 또 미련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서서히 한라산 가슴에 들어서면서 모두 나무를 뒤덮은 눈꽃의 절경을 보고 탄성을 자아낸다. 손이 닿으면 금방이라도 녹아 내려 물이 될 것 같지만 끝까지 나무 가지마다 휴식처를 틀 듯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다. 바위도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눈옷으로 갈아입고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보라고 한다.

목적지가 가까워지면서 돌아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던 누군가 "바다를 보세요 배가 너무 빠르게 달려요" 한다. 산에서 바다를 보니 하늘과 바다 사이에 비행기가 지나는 것이 바다에 배가 빨리 가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바다 속에 한라산이 있고, 한라산에 바다가 들어 있어 보이는 듯 한 풍경을 보면서 제법 높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실감되었다. "왜, 산에 따라 왔던가?" 나는 서서히 아파 오는 다리와 엉덩이뼈를 만지면서 물어본다. 산이 있으니 산에 간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산이 좋아서 올랐다는 말도 있을 수 있으나 분주한 삶을 잠시 떠나 산 안에서는 너무 약한 자신의 존재를 본다.

웅장한 산 앞에서 나는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아름다운 눈빛(雪景) 앞에서 자랑할 것 없다. 입구에서 등반을 시작한지 세 시간 만에 윗세오름 산장에 도착하여 주변 절경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찬양하며 동행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둘러 모아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자연에 대한 감사,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백설의 운치 속에서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만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결론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휴식 후, 힘을 돋구고 비탈길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남았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체력과 고통을 느끼는 다리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에 산장에서 등산도구를 보충하고 하산을 시작하였다. 동행한 아이들은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듯 비닐봉지를 엉덩이에 깔고 눈길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다. 굽이굽이마다 돌들과 작은 웅덩이가 있지만 아이들은 마냥 기분이 좋아서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어른들도 몇 걸음 더 걷다가는 체면을 거두고 비닐봉지를 썰매 삼아 눈길을 타면서 빠르게 내려갔다. 하산을 시작한지 두 시간만 에 입구에 올 수 있었으니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내려오는 길은 대 체로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다. 남보다 땀을 더 흘리고 수고한다면 그만큼 보답이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 날 저녁에 "강남골 詩 낭송회"에 우리 가족이 참석하였는데 아들이 그곳에서 지은 詩를 등산 결론으로 적어본다.

하늘에서 땅을 보면 그림이 되고요
땅에서 하늘을 보면 왕이 됩니다.
마음은 끝이 없는 세상

북청의 천둥소리

요즘 들어 금강산 관광 소식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는다. 그런데 어렵게 수 십 년 만에 열린 길이지만 실향민들은 선뜻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향집이나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몰라도 어떻게 관람으로만 갖다 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유람일지 모르나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에겐 그런 반쪽 귀향이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아버지는 함경남도 북청이 고향인 까닭에 유난히 그런 소식에 귀를 기우리게 된다.

6•25 동란으로 고향을 떠나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와 가정을 꾸렸고 평생을 속히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사셨다. 아버지는 부산 영도다리 건너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릴 때 나는 영도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신기해서 그곳에 자주 놀러갔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주 큰 눈깔사탕을 주시면서 억센 함경도사투리로 "조금 놀다가 엄마와 같이 집에 먼저 가 있거라" 하시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내가 여섯 살 때, 서울로 이사 온 우리 가족은 실향민 가호적을 하라고 하여 그후로 서울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가 몹시 외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느낀 것은 약주 한잔에 "번지 없는 주막"을 흥얼거리시다가 슬며시 잠드신 모습을 볼 때였다. 아버지께서 가장 밝은 모습을 보이신 날은 실향민들이 모이는 "북청 군민회", "함경남도 도민회"라고 기억된다. 이 날에는 아침부터 바쁘시다. 이발소에 다녀오시고 모처럼 이북에서 함께 공부한 전문학교

동창 명단을 보시면서 여기 저기 전화를 하시고 꼭 만나자고 하시는 모습에서 비로소 아버지에게도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덩달아 기뻤다.

한번은 온 가족들이 창경원에서 모였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청을 바라보며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도 뭉클한 마음으로 다가왔다. 기독교인이 되신 다음부터는 늘 늦은 밤 예배당에 가셔서 가족들과 그리운 고향에 가고 싶다고 통일을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 고향이 없다는 것, 아니 가고파도 갈 수 없다는 것이 실향민들에게는 큰 슬픔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 외로우셨을 것이다. 장남이자 독자인 나는 이십대 초반부터 목회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였다. 잠깐 서울에 나오거나, 같은 서울에 있어도 잠시 들리고는 일어서야 하였으니 그때마다 아버지 뵙기가 매우 민망하였다.

제주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께서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담당 의사가 아들을 찾는다고 모친께서 전화를 하셨다. 서둘러 서울 병원에 가보니 이미 실신상태였으며 감각이 없으시고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였다. 전립선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가벼운 증세로 운명을 달리할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에 그 충격이 컸다.

두 달 동안 거의 서울과 제주도를 왕복하면서 병세의 호전을 기다렸으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담당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아버지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일로 가족들은 병원과 끝까지 맞서서 원인을 밝히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法的 대응을 하자니 규명이 어렵고 단지 의사에게 어떤 불이익만 주어진다면 그분의 장래에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날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 드렸다. 다행히 병원은 法的 책임은 어렵지만 道義的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호흡기 제거에 동의하자 아버지는 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씀 한 마디 못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게 가고파 하시던 북녘 고향 땅, 꼭 한번만이라도 고향 집 뒤, 배 밭에서 배 떨어질 때마다 들리는 천둥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로움은 아버지代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남한 땅에 가까운 친척이 없이 남자 혈육이라고는 나와 내 외아들뿐인 우리 두 부자에게 "실향민 가족"이라는 말이 따라 붙으니 말이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가까운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도 없이 말없이 묻히신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두고 오신 고향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조를 참이다.

통일이 된다면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서음리 이망지리 덕일초등학교 서측 백 미터 옆에 있다는 아버지의 본가에 들러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천둥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다.

아버지

금주에도 어김없이 함경남도 신문과 북청 소식지가 내게 배달되었다. 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하시며 보시던 것을 내가 받아 보고 있는 것이다. 신문이 도착하면 북한 경제나 근황엔 관심은 없고 제일 먼저 신문 하단에 실린 북청군 후원자들의 이름들을 살핀다. 그 안에서 내 호적에 있는 돌림자인 석(石) 字, 환(煥) 字를 쓰는 이름을 찾는다. 귀에 익은 이름들을 통하여 나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친척일 것이고 신문에 이름이 있다면 남하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지금도 내 호적에는 이북의 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생전에 호주의 사망 신고를 하라 하였으나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아버지는 명절 때만은 이북에 두고 온 그리운 가족과 가슴에 담은 고향

을 만나고 계셨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가 작고하신 후에 호적을 정리하여 호주에 내 이름을 올리려 하다가 왠지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 같아 망설이게 된다. 이런 연유로 신문을 열심히 보지만 아직 같은 돌림자를 쓰는 이름을 만나지 못하였다. 풍문에 이미 반동가족으로 몰려 해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이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아버지께서 유난히 가까이 하신 아버지의 동창이나 친구 분들의 성함을 찾는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신문에서 내가 익히 알만한 아버지 동창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다. 몇 말씀 뒤에 "부친 장례식 때, 자네를 보니 영락 아버지 얼굴이더군 일간 만나세" 하시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 세월만 다를 뿐, 나를 보는 이들은 아버지와 똑같다고 말씀들을 하신다. 그래서일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과 내 얼굴이 점점 하나가 되어간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립다. 마지막 눈을 감으시기 전, 나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셨다면 이리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친척이 없이 자란 까닭에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회한(悔恨)은 항상 내 앞에 자리를 하고 있다.

이제 통일이 된다면 아버지 고향에 누가 같이 가준다 말인가?, 그곳을 아는 분들은 하나씩 세상을 등지고 있기에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통일이 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가고파 하시던 고향에 아버지 대신 내가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면 그곳의 친지들은 나를 모를 것이니 나를 증명할 조부께서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과 아버지의 사진, 동창회 명단을 들고 가겠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를 보면 누구든지 마치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으로 알아보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자랐던 고향에 내가 아직 가서 보지는 못하였으나 내 마음속에

서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과 흔적을 내 아들이 기억하며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다른 소망 한 가지가 있는데 외아들에게는 내가 받았던 외로움은 물려주지 않으려 한다.

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모처럼 아내와 같이 짐을 정리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밖으로 고개를 비쭉 내민 사진첩을 보고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넘겨보기 시작하였다.

누런 사진첩 안에는 내가 십대 학창시절, 모자를 벗은 채 까까머리를 드러내고 겨울 교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어느 곳인지 모르겠으나 學友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신발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군화를 신고는……

또 다른 사진들을 보았다. 나보다 목 하나만큼 더 키가 큰 정윤권君이나 다른 또래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일 정도로 노숙한 김대겸君, 유독 영어를 잘해서 부러움이 되었던 번개 최광윤君, 그가 보았던 참고서 영어정해를 곁눈으로 흘겨보면서 나도 그 참고서를 구입하여 영어공부를 잘하여 친구를 이기고 싶었다. 나중에 수소문을 하였으나 불광동에 살 것이라는 소문만 들었다.

벌써부터 펜팔을 한다면서 조회시간에 여학생에게서 받은 편지를 감추기 바쁜 김君, 그는 나만큼이나 키가 작았는데 그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자는 요청을 내가 거절한 일이 있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걸렸다.

당시에 학생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귀한 사진기를 들고 온 조君, 그는 그 때 이미 그 부친의 사진관에서 부사장(?)이었던 탓에 친구들에게 인기를 독차지를 하였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가게가 있던 곳을 찾았으나 이미 없어졌다.

사진 속에 손가락을 브이字로 펴고 자기만 잘 나오게 해달라고 보채는 김학성君의 모습을 본다. 그가 살았던 황학동을 몇 차례 돌아보았으나 도저히 그의 집을 찾아낼 도리가 없었다.

이른 아침 만원 통학 버스를 타고 보면, 만년필에서 잉크가 새어나와 옆에 있는 여학생 세라복과 가방을 온통 퍼렇게 멍들게 하였다. 그뿐인가 도시락에 김치를 반찬으로 넣어주는 날이면 학교에 갈 때까지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리 저리 휩쓸리다 보면 김치를 담은 유리병을 아무리 비닐로 봉하고 뚜껑을 확실히 닫아도 어느새 김치 물이 흘러나와 가방 속의 책과 버스 안을 온통 냄새로 진동시킨다.

그 시절에 만원 버스를 타는 것은 과히 전쟁에 버금간다. 조금 늦으면 버스 안내양 바로 앞에 손잡이를 간신히 잡고 가야 한다. 때로는 안내양의 잘못으로 버스 난간에서 길바닥에 짐짝 떨어지듯이 내팽개친 일이 어찌 나만의 경험일까.

학교에 가기 싫었고, 공부 시간을 지겹게 느꼈던 그 시절에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그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불같이 일어난다.

내가 유난히 그리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아마도 부모가 이북에서 가족 없이 단신으로 남하하셨고, 친척도 없이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인지 모른다.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라는 낯선 곳으로 이사 와서 벌써 강산이 한 바퀴 반을 돌 시간을 살았다. 그래서 사진을 보다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나 그들을 꼭 한번만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그리움으로 목이 메인다.

제주도. 내가 사는 성산읍에서 1시간만 나가면 더 갈 곳이 없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 아닌가. 육지로 나가려면 제주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부두에서 배를 타야한다. 그러니 더 갈 곳 없는 그 갑갑함이란 호랑이가 우리에 갇혀서 "어흥"하고 소리만 지르는 심정이다.

이곳에서는 물건을 다양하게 구입하기 어렵고 꼭 필요한 물품이 없다면 주문을 하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고 타 지역과 연계된 교통의 불편 때문

에 서울을 더욱 그립게 만든다.

물론, 제주도는 공기가 맑고 자연이 깨끗하다. 순수한 제주인의 마음 또한 좋은 점이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하고 원기 넘치는 젊음을 그냥 좋은 환경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다 넓고 다양한 문화와 계층을 만나고 또 작은 일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을 더욱 그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의 입장만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식에게 많은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겠으나 자식을 따로 보내어 살게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나의 그리움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욱 서울의 거리가 나를 부르는 듯싶다.

내 아들은 그렇게 내 그리워하는 마음을 살피기나 한 듯 "아빠, 내가 나중에 다 해 드릴께요. 걱정마세요, 나는 어른이 되면 미국에 가서 살겠어요"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정보를 담은 책을 날마다 끼고 산다. 독자인 녀석도 외로움을 많이 탈 터인데……

서울에 간다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꼭 남산에 올라 장충단으로 가는 운치 있는 길을 꼭 걷고 싶다. 또한 창경원과 비원, 덕수궁은 물론, 북청군민회가 열리는 곳에 가서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고향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아들에게 실향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통일이 되어서 내가 북청에 못 간다면 아들이라도 가야하지 않겠는가.

문득, 문득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고 혼자 저 멀리 달려가 있는 것을 느낀다. 아직은 추억을 찾을 나이도 아닌데……

서울 나들이

갈 형!

만 13년 만에 제주도를 떠나 온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형이 알고 계시듯이 서울은 제주도에서 14년을 살면서 너무 너무 밟고 싶었던 나의 그리움입니다. 땅을 밟을 뿐 아니라 인생의 기회가 있고 어디든지 달려가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아보고 싶어한 곳입니다.

벌써, 이사 온지 여러 달이 됩니다. 이사를 와서 처음 느낀 것은 매우 춥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비교하면 약 섭씨 10도 정도 낮아서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거기다가 또 눈이 얼마나 오는지. 작년에는 이곳에 눈이 많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이사를 온 뒤에는 마치 신고식을 치르듯 연 나흘씩 눈이 내려옵니다. 그런 추위에 떨면서도 이층 창문 밖에 우뚝 서 있는 산과 빠른 속도로 지나는 차량의 행렬을 바라보니 비로소 사람 사는 곳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참, 서울은 이곳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기차를 타고 1시간만 가면 그곳에 서울이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가족이 (가족이라야 3명이지만)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기차를 보는 아들이 제주도에는 기차를 탈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 기차를 타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오고 육지에 산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들어오는 기차를 기다리다가 주변을 보니 중년 남자가 구둣발로 눈 위에 무엇인가 쓰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눈에다 글을 쓰거나 해변에서 모래 위에 글을 몇 자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그의 아내로 보이는 중년 여인도 그 옆에다 또 쓰는 것입니다. 무심코 그들이 쓴 글자를 보고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써 놓은 것은 그의 아내의 이름인 듯 한 "김춘자"라는 글씨였습니다. 중년 여인은 그 옆에 꽃무늬를 그려 놓았습니다. 제가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봄 여자氏"하고 불렀더니 중년 여인이 남편에게 "내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던 승객들 모두가 그만 웃었습니다.

눈 오는 역 홈에서 촌스러운 이름과 동심에 젖어서 구둣발로 글을 쓰는 중년 부부의 모습에서 그들의 사랑이 살아 있음을 인생의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 만나 지금까지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 다정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씩씩하게 생긴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기차를 보면서 한창 청년시절에 경춘선을 열심히 다녔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경춘선은 당시 청춘을 발산하는 등산 노선이었습니다. 기차에는 여러 모양의 추억을 느끼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각 객실을 누비며 다니는 홍익회 승무원들은 여전히 "땅콩, 호도과자, 신문이요"하면서 시선을 끌게 합니다. 각 역에서 잠시 정차를 할 경우에는 매점에서 우동 한 그릇을 들고 뛰어 오는 모습도 그 시절과 같아서 정겹습니다.

갈 형!.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서울을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아시지요. 그 서울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역을 나오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멀리 있다는 핑계로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먼저 그곳을 달려갔습니다. 눈 덮인 아버지 묘소를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잘 해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 앞에서 더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咸南 북청지와 내 글이 실린 以北 五道新聞을 펼쳐 놓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곳에 온종일 있고 싶었으나 내 마음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이제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돌아섰습니다. 이후로 내 마음이 가까이 있음을 아버지도 아실 것입니다. 통일 일찍 온다면 반드시 아버지의 고향 북청에 이장을 해드릴 것입니다.

다음에는 큰 책방입니다. 마음에 드는 책들을 마음껏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읽으며 꼭 필요한 책은 몇 권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디를 가장 가고 싶은가 물었더니 남대문 꽃시장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고 꽃꽂이 사범인데 그간 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으니 늘 다니던 남대문 꽃시장을 돌아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형은 물으실 것입니다. 서울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고 말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옛 기억을 더듬

어서 찾아 다녀 보고 싶은 생각만 굴뚝같습니다. 그렇게 다닐 겨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서울은 물론 부산까지도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감사함을 가지게 합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맑은 풍경이 좋은 제주도가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들을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책은 물론, 어느 것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요로운 서울이 마냥 좋습니다. 명동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골목 어딘가에 있는 찻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 시켜 놓고 마침 그곳에서 음악이라도 틀어주는 디스크 자키가 있다면 70년대 통기타 노래 한 곡 청해듣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남산 순환도로에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남산순환도로를 말하면 형은 피식 웃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던 국어 선생님이 당시 숭의여고 교목으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 하는 핑계로 그 학교 앞을 지나 케이블카 앞으로 수없이 지나 다녔지요. 그뿐입니까, 남산도서관 앞에서 괜히 교련복 호크를 열어 가슴을 내어놓고 잘 안되는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세라복 입는 여고생들을 많이 괴롭혔지요. 그때는 문학을 하겠다는 여고생들과 월간 학원을 통해 펜팔도 많이 하였는데.

봄이 오면 반드시 온 가족이 그곳 김소월의 기념 詩碑 앞을 지나 팔각정 앞길을 걸으며 내 학창시절에 얽힌 영웅담과 낭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형이 살고 계실 댁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 형!

오늘은 참으로 모처럼 서울 거리를 많이 걸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아들을 옆에 대동하여 高氏 가문이 출동을 한 것입니다.

저무는 햇빛의 신호를 맞추어서 각자의 손에 책과 꽃을 나눠 들고 다시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함께 나선 아들이 자꾸 보챕니다. 이왕이면 용인 자연농원까지 갔다 오자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싶었던 서울의 정취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아들을 데리고 용인 애버랜드와 아내의 고향 충주를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온양으로 가는 철길 가로등 불빛 사이마다 아주 잘 왔다고 환영하며 손을 흔드는 겨울나무의 가지가 너무 잘 어울려 보입니다. 서울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과 옛 친구들을 쉽게 만나거나 찾아 볼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기차 출발 얼마 후에 그만 잠에 빠졌습니다. 내가 깊게 잠든 것을 아내와 아들이 보면서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갈 형!.
추억은 그리움이 있는 한 나만의 보물입니다. 내 가슴속의 추억에 대하여 남들이 거짓말로 알든, 이해를 하지 않던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내 가슴속에 그 시절의 이야기가 살아 있고 그 이야기를 풀어서 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하면서 새로 시작한 예배처에 온주문화원이라는 작은 문학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아내가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었으면 합니다.
갈 형. 일간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나의 보물

어느 TV 프로그램에 각 가정에서 그간 보관하던 옛 물품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받는 모습을 본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품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물품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저런 귀한 물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을까?.

옛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장하게 된 유래와 가격, 진품 여부를 찾기까지 긴장을 풀지 못한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진품의 탄생의 감격을 전율로 느끼기도 한다. 또한, 저것은 참 좋은 물건이다 하는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오리라 잔뜩 기대를 한다. 그러나 막상 가격이 붙지 않는

모조품이나 복사품이라면 어처구니없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자니 아내가 "당신은 저런 물건 하나라도 있느냐?"고 툭 쏘듯이 묻는다. 비록, 헐어빠진 장롱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다면 저기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기는 아내의 말대로 나에게는 값진 보물이 랄까?, 아끼는 조상의 유물이랄까? 하여튼 들고 나가서 감정을 받아야 할 古品이나 남에게 자랑스럽게 보일만한 귀중품이 하나도 없다. 모두 어스름한 새벽에 쓰레기 처리장에 가져다 버려도 누가 거들떠보지 않는 것만이 내 방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갖다 버리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둔 세월 속에 남아 있는 것들뿐이다. 이것은 가져갈 수 없고, 보일 수 없으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유명한 이들의 행적은 歷史라는 기록을 남기지만 나의 추억이나 세월은 아무도 모르는 지나간 여름 낮의 소나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게도 보물이랄까?, 유물이랄까? 하여튼 古品이라고 남에게 자랑하고픈 것들이 있기는 있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하여 청계천에서 눈과 비를 맞았고, 작열하는 태양 빛도 마다하지 않고 청계천을 수없이 다닌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잔뜩 낀 구석에서 건져낸 나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오래된 책 한 권이 그것이다. 학교 문예전시기간에 이미 절품이 되었고 국내에는 희귀한 책이라며 전시장에 내 보낼 때면 흥분이 되었다. 그런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고가품일 터인데 다행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책을 근 삼십 년 간, 고이 간직하고 애지중지하였다. 빌려달라면 주지 않았고 한번만 보여 달라면 생색을 내고 겨우 한번 선심 쓰는 척하면서 보여준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책이 갑자기 천덕꾸러기가 되기 시작한다. 작은 방에 살림과 다른 책들이 너무 늘어나서 간직할 장소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 책이 지금 필요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의 책이라서 아니다. 그것은 출판사에서 그 책의 증보판을 새로 출판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아꼈는데……

그렇게 아끼던 책이 더 늘어난 내용으로, 좋은 종이에, 읽기 좋게 가로의 큰 글자로 출판이 되어서 서점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나의 옛날 책은 더 이상 희귀품이거나 古品으로 존중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이 새로 출판된 그 책을 들고 와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안타깝기만 하다.

며칠 뒤, 고물장수 손수레에 신문지와 같이 실려 가는 그 책을 보노라면 너무 사랑하였기에 떠나보낸다는 키에르케코르의 고백이 떠오른다.

그렇다. 내게는 보물은 없다. 그런 것을 가져 보지도 못하였고 누군가 나에게 보물이라거나 귀한 물품이라며 주는 선물을 받아 보지도 못하였다. 또는 아내와 자식이 보물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그것은 어느 보물보다 귀한 보물이다. 그러나 아내와 나도 세월이 지나면 이 땅에서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자식들도 품안에 있을 때뿐이지 결국은 각자의 짝을 찾아 새 살림을 찾아 떠나면 더 이상 내 보물은 아니다.

나에게 보물이라고 붙여야 할 이름이 있다면 내 하는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보물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일에 대하여 천직으로 알고 만족하며 살아간다.

나에게는 남들이 알아주는 보물은 없다. 그러나 나만의 보물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리라.

불효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하나님나라로 가셨다.

그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프다는 내색을 하시지 않았기에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만 피곤한 기색을 내시면 힘든 내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게 하시지 않나 하는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원래 함경북도 함흥 부잣집 막내로 태어나셨다. 그의 인생이 바뀌신 것은 한국동란이다. 홍남 친척집에 다니러 왔다가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부두에 정박 중인 배에 이웃들에게 강제로 떠밀려서 승선을 하였다. 며칠만 지나면 고향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몇 시간인지 모르나 마냥 배를 타고 오다가 하선을 하고 보니 부산 땅이었다.

아는 이 없고, 귀하게 자란 막내둥이로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마침 먼저 함경남도 북청에서 홀로 남하한 한 청년을 만나 것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외로운 남녀가 더 마음을 따질 겨를 없이 북녘을 바라보며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다.

어머니.

그분은 정말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셨다. 다음에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오는 손님, 싫어하는 이웃을 대접하기를 즐겨 하셨다. 하기야 흑백 사진 속의 어머니 젊은 모습은 참으로 미인이셨다. 또한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방문객들마다 아버지에게 좋은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칭찬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산 영도다리를 건너 장을 보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 어머니는 먹을 것을 듬뿍 사면서 저녁에 찾아 올 분들을

맛있게 해주는 것에 행복감을 가진 분 같았다.

그러나,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나는 느꼈다. 흔히 말하는 교내 치맛바람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회 임원, 지역 모임에 매사 나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많은 염려를 하셨다.

아버지로서는 어머니의 활동을 지원할만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까닭에 반대는 못하고 거의 방임을 하신 것 같았다.

결국은 두 분의 싸움이 잦았다. 나는 여동생 3명을 데리고 약수동 뒷산에 올라가 달을 보며, 학교를 마친 후에는 되도록 그런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늦게 들어갔다.

나는 방과 후에 시간이 남으면 아버지가 계신 동대문시장에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는 사이 알게 모르게 어머니하고는 긴장이 쌓이고 좋은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벽을 쌓고 있었다.

대학을 들어가야 할 시기,

너무 생활이 어려운 터에 아버지는 주택부금을 적립한 것을 빼내어서 등록금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그만 소비하고 만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는 최대의 상처였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증 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성격, 막내였던 환경 탓인지 항상 당신의 욕구를 먼저 채운 다음에 가정, 자녀를 돌아보는 기이한 습성을 가지고 계셨다.

내가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에도 돌이켜 보면 한번도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각인되어진 어린 시절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불의의 의료사고로 먼저 하나님나라로 가신 후, 그 분을 아들인 내가 모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 역시 어려운 목회지에서 苦戰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모셔야한다니 참으로 한숨이 나왔다.

매사에 손이 크신 어머니, 아끼거나 다음을 생각을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손님이 온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외상을 달아두거나 돈을 빌려서 큼직하게 상을 차려 대접을 하여야 편하신 모양이다.

매사에 아내와 작은 문제로부터 부딪치는 것이나 현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등등으로 나와 삼각대립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급기야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몸이 쇠약하여지자 나는 어머니를 큰딸 집으로 잠시 가 계시라고 하였다. 마지못해 가시는 어머니에게 나로서는 좀처럼 만져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생활비를 드렸다. 그리고는 다짐이라도 하듯이 오시라고 할 때까지 서로 조금 헤어져 살아보고 생각을 해보자. 다시 만날 때는 화목한 관계를 가지자고 부탁을 드렸다.

그러는 사이 나는 이사를 하였고, 어디에 사는지 알리지 않았다. 알렸다가는 찾아와 아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舊正. 그래도, 어머니인데 하는 마음이 들어 세배하러 큰딸 집에 찾았다. 너무 반가워하면서 당장이라도 따라 나서고 싶어하는 눈치를 본 나는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

며칠 후, 여동생이 다급하게 어머니가 매우 위독하다, 아마 두 달을 넘기시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나에게 어머니를 맡기려는 어머니의 엄살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막내였기에 조금만 편찮으시거나,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화를 받은 이상 가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조금만 더 큰딸 집에 계시면 자리를 잡는 대로 모실 수 있을 것인데 걱정이 앞섰다.

어머니를 다시 모시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딸들과 아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정말 위독하다면 사위 집에 그냥 계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계속 주저하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장 모시고 오라고 나를 격려하고 현실을 받아드리자는 것이다.

108·그리움에 목이메이고

마음에 결정이 되고 나니 한시라도 바삐 모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 늦은 밤을 가로질러 큰딸 집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막상 모시고 보니 병이 너무 깊었고 의사의 왕진을 부탁하고 진단 결과를 들어보니 한 달을 넘기시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고, 치매까지 들어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고 기동을 못하는 어머니.

그것을 지켜보는 나로서는 메어지는 가슴을 쓸어 담아야만 하였다. 결국은 저렇게 삶을 정리하시는가.

결국은 아들의 집에서 마지막을 넘기실 것이라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를 좀 보여주시지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미치자 애증이 교차되었다.

오일 째 되는 날.

조금 차도가 나아 보이면 마주 앉아서 잘 안 나오는 불분명한 목소리로 어머니는 유언을 하신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면 자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해 달라는 것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리기 어려운 일인지라 주저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에 의과대학 담당자와 의사의 증인 하에 다시 어머니의 의사를 여쭈었더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셨다.

“어머니.

참으로 야속하십니다. 비록 불편한 마음으로 내 곁에 오셨지만 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달라면 내가 어찌 유언을 받아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삶의 마지막을 아시는 어머니가 나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일들을 다 잊고 용사하자는 말씀도 하셨다. 그도 내 기묘한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찌 삶을 정리하는 어머니에게 더 못해드려 죄송하지 그런 것으로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입니다.

나에게 오신지 이제 열흘.

주일 새벽이기에 2시부터 일어나 성경 본문과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방을 들어가 보니 어제와는 사뭇 다른 거친 숨소리를 내

셨다.

급히 딸들에게 전화하여 가급적 빨리 와서 어머니를 뵙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유난히 큰손녀를 좋아하셨는지 정신이 있을 때마다 큰손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막내딸이라며 나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막내딸의 가정과 장래를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여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시켜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가 어머니 집이니 의식이 없어도 좋으니 이렇게 이삼년은 살아 계시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내 마음의 사랑이 부족하였는지 불과 몇 분 뒤, 거친 숨을 거두셨다.

딸들이 급히 달려 왔으나 이미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영안실에서 겨우 잠든 얼굴을 보고 오열을 토하였다.

사랑하는 어머니.

불효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닫혀서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가난한 삶이라도 어머니 좋으신 일들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효자입니다.

누구요?

도시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던 이가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시골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무도 가지 않으면 본인이라도 가야하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막상 그 교회로 이사를 와서 보니 교인들이라고는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그래도 주일에는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서로 인사를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주일 아침에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고 타종을 치고 난 후, 강단에 올라서서 회중석을 바라보니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주일 아침부터 퍼붓는 비로 인하여 교회 지붕에서 비가 새어 들어 예배당을 침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주일인데, 歷史가 오래된 교회라는데 이리도 교인 하나 없을까 하여 온 종일을 기다려 보았으나 비만 올 뿐.

주일을 그렇게 허탈하게 보낸 다음 월요일 아침에 지붕 어디에서 샛길래 빗물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 왔는가 하여 지붕위로 올라가 살펴보기로 하였다.

망치와 못을 들고 지붕의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그만 빗물로 미끄러워진 까닭에 땅바닥까지 순식간에 나가떨어진 것이다.

순간, 「아! 다리가 부러졌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모든 것이 절망이다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 오더니만 「목사님 괜찮으십니까?」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요?」하였더니 「이 교회 집사입니다」하는 것이다.

「아니, 어제 주일에는 보이지 않더니 어째 지금 나타났소」물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가시길래 목사님도 곧 가실 분 같아서 그랬습니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럼 왜 지금은 나타났소」하였더니「이제 다리를 다치셨으니 금방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 왔습니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다.

목회를 규정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섬김!」주의 일에 목숨을 다하여 섬기되, 떠나는 정거장 목회보다는 목회지에 뼈를 묻을 수 있는 일꾼들이 많기를 바란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를 부르며 자원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날로 많아지기를 바란다.

최귀숙의 隨筆

1999. 3. 문예사조 수필 신인상 등단
등단작품 "나의 기쁨"

가족:
남편 고봉환 목사와 아들 高志三 (천안, 병천고등학교 재학 中)

나의 기쁨

지금 부엌에서는 구수한 고구마 굽는 냄새가 난다.

며칠 전 가스 오븐 레인지를 들여놨다. 어려운 때에 거금을 들여 장만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마침 할인해서 팔기에 주위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결정했다. 주문을 하고도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다. 물품이 도착하자 아들이 나보다 더 좋아라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은 던져버리고 춤추며 달려들어 이리저리 살폈다. 돌려도 보고 눌러도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년 전부터 갖고 싶던 오븐 레인지가 오던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제품설명서를 읽고 또 읽으며 공부를 했다. 밤늦게까지 마음이 들떠서 이것저것 만들어 볼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장 담그기며 고추장 담기까지 익힐 정도였다. 결혼 후 우리 집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남편은 자주 주위의 외로운 분들을 초대하였으며, 나 또한 손님접대를 은근히 즐겼다. 그래서 한가한 날이면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서로의 식성과 취향을 알아가면서 친근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하며, 아끼는 마음도 자라기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구나 행복하다. 이때에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몸이 피곤하다가도 신나게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뿐해진다. 맛있게 먹어 줄 사람만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끓이고 지지고 굽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론 유별난 것일지 모르나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만일 내가 이 일이 즐겁지 않다면 남편이나 나나 얼마나 괴로우랴. 그런 면에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어떤 이는 부엌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는데 나는 손님이 반가운 걸 보면

아마도 이런 것이 천성이 아닐까 싶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늦은 나이에 간호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학원에 다닐 때였는데, 몸도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있기에 나가보니 손님이 네 분이나 오셨다. 저녁식사 시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몸을 추스르고 식사를 준비했다. 돌아가려고 나오시다가 식탁을 대한 분들의 놀란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쉬려고 온 줄을 아는데 웬 진수성찬이냐 하시며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서 아파서 조퇴한 것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기분이 한결 나았다.

이렇게 음식 장만하는 것이 몸에 배이고 나 스스로 즐기다 보니 초대를 받아서 가거나 외식을 할 때도 자연히 조리 과정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집에 와서도 흉내를 내 보고 분석도 해보곤 했다. 결혼한 지 십 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가정요리는 조금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이는 점차 새로운 것을 요구했고, 나도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조리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아이가 원하는 음식은 요즈음 서양식 패스트푸드의 대중화 때문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광고 덕분인지 가끔은 특별주문을 한다.

유난히도 음식의 맛과 색깔에까지 관심이 많은 것은 나를 닮아서일 것이리라. 똑같은 음식도 이렇게 담아라 저렇게 담아라 하고 참견을 잘하여 때론 화가 나기도 한다. 아이는 엄마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지도 모른다. 밥상을 다 차려 놓았을 때, “엄마, 나 냉면 먹고 싶어.” 하면 두말 않고 만들어 주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내 힘닿는 대로, 아이의 필요에 따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 줄 때 난 나의 존재 이유와 내 삶의 기쁨을 선물로 받는다. 어른인 나도 가끔은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어서 저럴까하여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마음에 아이의 버릇을 잘못 들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엄마의 큰 행복이 아닐까?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한다. "저 아이가 결혼하면 마누라가 꽤 피곤하겠다. 저렇게 요구 사항이 많으니"

하루는 롤케잌을 만들었다. 구수한 빵 굽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고 내 마음도 빵처럼 잔뜩 부풀었다. 잘못 되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꼼꼼히 살피며 순서대로 만들었다. 구워지는 30분 동안 가슴이 뛰었다. 다 구워진 케잌에 딸기잼을 펴서 둥글게 말아 완성했다. 남편과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단번에 절반을 먹어치웠다. 내 마음도 덩달아 흐뭇했다. 빵집 앞을 지날 때 나던 그 맛있는 냄새가 우리 집에서도 날수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찾아드는 사람이 있다면 차를 곁들여 멋진 즉석 파티를 열 수도 있지 않은가. 마주 앉아 세상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이 붕 뜬 것 같다. 이젠 또 무얼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카스테라를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손님이 오셔서 위층, 아래층으로 심부름을 하다보니 깜빡 잊고 설탕을 넣지 않아 단맛이 전혀 없는 싱거운 빵이 되었다. 뻣뻣하고 향기와 맛이 없어 그대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만한 일쯤이야 다반사지 하면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 보기로 했다. 구수한 냄새의 어릴 적, 엄마가 아궁이에서 구워주던 시커멓게 그을린 감자를 먹던 때가 그립다. 그새 감자가 다 구워져서 훌륭한 간식이 만들어졌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생일 케잌을 굽고 멋진 장식도 부지런히 배워서 아이들 생일에는 내 손으로 생일상을 차려줘야겠다. 축하할 일이나 감사해야할 일이 있을 때, 맛있는 빵을 구워 내 마음을 전하고 선물도 내 솜씨로 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의 짜릿함이 있어서 좋다. 할 일이 하나 늘었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긴장되어서 좋고, 그것이 즐거운 일일진대 내 발걸음

도 가벼워져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피곤도 잊히리라.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날마다 잔치하느니라.'

어머니

바람에 날리는 밀감 향기가 온 동네에 가득 찰 때면 어머니가 몹시 그리워진다.

나는 일찍 철이 들었던지 어머니의 아픔이 마치 내 일처럼 다가 왔었다. 그래서 용돈 때문에 졸라본 일도 없고 옷 사달라고 떼를 쓴 기억도 없다. 어머니는 나 말고도 올망졸망한 아이들 넷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오직 자식 생각에 당신을 위해서는 평생을 무엇 하나 사실 수 없었던 내 어머니.

비가 오는 날 말고는 늘 들에 나가셨는데 난 어머니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했다.

내가 십대 후반일 때, 아이들 과외공부를 지도를 끝내고 호빵을 사 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무엇 하러 이런 걸 사 왔느냐고 야단이셨다. 난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야단을 듣고는 다시는 아무 것도 안 사오리라 결심했다.

여고를 졸업하고 고향 충주를 떠나 상경했을 때는 겨우 명절에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시집을 온 다음부터 낮엔 일하느라고 잠시 잊었다가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 며칠 동안 잠만 잤다. 아마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랬나보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싶으셨을 거

라는 생각이 왜 이제야 나는 걸까. 난 참 숙맥이다.

널 시집보내면 내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다던 어머니. 내가 결혼한 후로는 정말 다리를 뻗고 주무셨는지 모르겠다.

그 먼 곳 제주도로 시집을 가면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못 보내겠다며 가지 말라고 붙잡던 어머니.

그래서 결혼 후에도 어머니께 고생스럽다거나 힘들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 친정에 가면 아무 것도 물어 보지 않으셨지만 초라한 내 행색이 안 되었던지 이것저것 챙겨 주셨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셨던 걸까.

新正과 겹친 아버지 추도예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처럼 친정에 다니러 갔다. 어머니를 뵙고 나서 우선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일 오겠다며 나섰을 때만 해도 씩씩하게 음식을 준비하셨다.

서울 일을 마치고 친정으로 가다가 전화를 하였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기막힌 소식이 아닌가. 불과 하루 사이인데, 어제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다니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평소에 그리도 아옹다옹하시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 년을 못 넘기시고 아버지를 따라 가셨다. 그렇게 일찍 가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실 일이지.

운명하시던 그 날부터 장례식 날까지도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평소에 든든한 빽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니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친구들의 위로에도 그저 멍하니 앉아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이제 거울 앞에 서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따로 사진을 찾을 것도 없이 내 머리에, 얼굴에, 흐릿해진 눈빛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묻어 난다. 음식을 만들 때든지 혹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머니를 떠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듯하다.

내 아이를 보면서 나를 향한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더듬어 본다. 딱히 내게 무엇이 되라거나 어떻게 살라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때대

로 나의 언행심사에서 어머니를 보는 듯하다.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를 보고 싶어한다. 내 아이 앞에서 내 어머니처럼 삶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다. 이 다음에 내 아이가 자라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처럼 살터이니 말이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몹시도 그립다. 마치 지금 충주 집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만 같다.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다면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만든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큰소리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어머니.

모 과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말이 있다.

물에 씻기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다른 과일과 비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맛이나 육질, 빛깔로도 여타 과일과 비길 수 없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당당하게 과일가게 한구석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진실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모과는 장미과 낙엽 교목으로 과수 또는 관상수로 심는다. 5월에 꽃이 피고 9월이면 누렇게 익는다. 키는 10 m쯤 되고 가지는 자갈 색의 윤기가 있으며, 잎은 어긋난 타원상 난형으로 윗 가장자리에 가는 톱니가 있어, 마치 장미 잎과 비슷하다.

수 년 전 이웃에서 모과나무 묘목을 얻어 우리 집 뜰에다 옮겨 심었다. 해마다 봄이면 숨죽이며 기다렸건만 도무지 꽃을 피우지 않는 거였다. 기다리던 내 마음을 아랑 곳 하지 않는 꽃과 잡초도 구분을 못하는 남편이 지저분하다며 뜰 안을 정리한답시고 모과나무를 베어버렸다. 내 희망을 송

두리째 빼앗긴 것만 같아 크게 화를 냈던 기억이 새롭다.

몇 해나 지났을까. 언제 새순이 났는지 비스듬한 가지가 내 키보다 훌쩍 넘게 자라있었다. 나는 꽃도 못 볼 바에야 저 못생긴 나무 뿌리까지 없애리라 벼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무심히 뜰을 둘러보던 나는 갑자기 얼어붙은 듯 모과나무 앞에 섰다. 모과나무 가지마다 촘촘한 봉오리를 보란 듯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숲의 요정들이나 들고 다닐 것 같은 아주 작은 양산 같은 꽃봉오리를. 나는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식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큰소리로 알렸다. 그러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담홍색 모과 꽃을 볼 수 있었다. 모과를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모과 꽃을 본 것은 처음이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찾아오신 듯 반가움에 어쩔 줄 몰랐다.

모과 꽃을 보고 있노라면 무한한 에너지가 내게로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무얼 하던지 새 힘이 솟는 것 같다. 하루가 즐겁고 감사가 절로 난다. 꽃을 보리란 소망을 접고 베어버리려던 나무가 이렇게 내 앞에 새로운 소망으로 피어나매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랴.

십 여 년을 살면서 이런 저런 아픔으로 인해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많은 날들. 검은 현무암처럼 종내 속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영혼까지 움츠러들어 한없이 외롭고 적막했었다. 마음 다부지게 먹고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다짐하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모과나무가 꽃을 피웠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벌써 꽃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꽃은 마치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결국 소망을 이루리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는 듯하다.

백 묵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그 때는 중학교 입학 시에도 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지금의 대학 입시만큼은 아니어도 늦게까지 공부를 했었다. 우리 집엔 형제가 여럿인데다 농사를 지어서는 아이들 공부를 시킬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기에 나는 한 권의 참고서도 살 수 없었다.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남으라고 하더니 교사용 참고서를 몽땅 주면서, 이걸로 공부를 하되 날마다 아침 자습문제를 내라고 하였다. 일 년 내내 방과 후에는 칠판 가득 문제를 쓰고는 아무도 없는 교실에 혼자 남아서 공부하는 즐거움이란.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도 공부할 참고서가 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은 뿌듯했다.

선생님은 당시 미혼이었고 댁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였는데도 저녁마다 자전거를 타고 한 밤중에도 집집마다 찾아가 밖에서 둘러보곤 하셨다. 그런 날이면 다음 날엔 꼼짝없이 기합을 받아야만 했다.

한 시간 수업하면 반드시 시험을 쳤다. 시험을 치르고 난 후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엉덩이를 맞아서 얼얼했다. 얼얼한 엉덩이로 의자에 앉을 때의 그 고통. 그 때는 선생님이 얼마나 야속했던지. 중학교 입학시험 결과, 내가 수석합격자가 되었다는 발표를 보고는 나를 번쩍 안아주었고 신문에 난 내 얼굴을 보여주시며 아주 크게 웃으셨다.

지금도 백묵을 보면 그 때의 감촉과 닳아서 매끈했던 칠판이 생각나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던 그 때가 그립다. 만일 내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쯤 난 어떤 모습일까. 고향에 가면 선생님을 찾아뵙고 큰절이라도 올려야겠다.

산다는 것

이웃집에 아가가 태어났다.

엊그제만 해도 남산 같은 배를 잔뜩 떠받치듯 힘겨워 하더니, 한 밤중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자기네 승합차로 병원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아기가 아빠 얼굴이 더 빨리 보고 싶었는지 승합차 안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중도에 119 구조대까지 부르는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아기 탄생의 전화를 받으면서 산모에게 방심하다가 차안에서 낳았다고 '방차'라는 이름을 선사했다. 姓이 蘇氏이니 감히 '소방차'라는 별명을 지어준 격이다.

아기가 태어난 다음날, 모였던 분들과 함께 병원에 들렀지만 너무 일찍 방문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진다. 어른 팔뚝만한 몸에 꼭 다문 입술이 어찌 그리 이쁜지. 아빠를 쏙 빼 닮았다. 생명의 신비로움은 오늘 우리게 아기를 보내어 순수로 돌아가라고 한다.

이번 아기는 순번대로 한다면 셋째이다. 둘째를 임신하고도 몇 개월이 못되어 유산을 하여서 슬픔 중에 있다가 다시 얻은 아기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회원들은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순산하였기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동행중엔 5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는 분이 있어 나는 내심으로 조바심이 났다. 남들에겐 당연한 일들이 그분에게는 왜이리 어렵기만 한 것인지 무어라 위로를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너무 기뻐하는 것도 미안한 것 같아 내 마음엔 속히 자리를 뜨고 싶었다. 아무리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해도 그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의 행복에 겨운 넋두리로 여겨졌을 것이다. 힘겹게 낳은 자식을 키우는 데는 또 얼마나 한 고통이 따르는지 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그러나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식 사랑이려니. 부모 된

그 기쁨을 못 누린 그 이에게 그저 안 스러운 마음뿐이다. 언제 한번 편안한 만남으로 속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다.

나와 가까운 후배는 15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아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아가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그의 근황을 듣고 격려를 하였다.

산다는 게 그런가보다. 서로 다른 아픔을 간직하며 남의 것을 부러워만 하다가 가는……

나의 기다림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부장선생은 새내기 교사임을 고려했던지 4학년 여자 반을 내게 맡겨 주었다. 잘 가르치고 싶은 심정으로 열심을 내었으나 뭘 모르던 탓에 매 주일을 좌충우돌하며 지냈다.

어느 날 예배시간이었다. 옆에 나란히 앉은 아이들을 무심코 둘러보는데 하나같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해서 나를 보니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얹고 그 위에 두 손을 모아 차곡차곡 포갠 내 모습을 흉내낸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출석을 부르면서 아이들과 눈 맞춤을 하다가 나는 다시한번 놀랐다. 어느 틈에 아이들 머리가 모두 단발로 변해 있었다. 그 순간 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그 해 여름나는 무슨 까닭인지 허리 밑

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미련 없이 단발로 잘랐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나는 이 십 대 초반 주일학교 교사 시절을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렇다고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이제라고 달라진 것도 별로 없다. 여전히 서툰 몸짓으로 하나님 사랑을 설명해 보려고 끙끙대지만 내가 무얼 가르친단 말인가? 내가 뭘 좀 안다는 것과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처음 맡았던 주일학교 교사시절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이 오기를 기다린다.

저자 소개

고 봉 환 (H.P 010-3161-4874)
1955년 부산 출생

목사
천안문인협회 회원
수필 강사

학력

그리스도신학대학 졸업
서울신학대학 목회대학원 수학

천안, 옥토선교교회 담임 목사
제21보병사단 포병연대 담임목사 2007년 현재

1999. 3. 월간 문예사조 수필 “수요일 아침” 등단
1999. 5. 월간 문예사조 시 “간혹”, “동갑내기 아내” 등단

최 귀 숙 (H.P 011-9400-3378)
1955년 충주 출생
천안, 기독 성심원 재직 중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

학력
충주여상 졸업
한양신학교 수학
제주 한라대학 간호과 졸업
건강세미나, 수필 강사

1999. 3 월간 문예사조 수필 “나의 기쁨” 등단

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개정판)

2004년 4월 29일 발행

저　자 : 고 봉 환, 최 귀 숙
인 쇄 :　한국문화
발행처 : 옥토선교교회 출판부
주　소 :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신도브래뉴 1차 107-602
전　화 : (041) 568-4874, 568-4873
가　격 : ₩ 8,000원
선교후원계좌: 농협 473-12-326540 (고봉환)